

중동구 최대 시장 폴란드,
EU 가입으로 떠 오른다

2004. 03. 16 (화) 16:00 - 18:00

KOTRA 아카데미실

연사 : KOTRA 전시사업팀 김형욱 차장
(전 바르샤바 무역관 근무)

목 차

I. 한 눈으로 보는 폴란드	4
위치, 인구, 면적, 수도, 경제규모, 정치제도, 언어, 특징	
II. 문화 엿보기	8
1. 문화특징	8
2. 역사	9
3. 상징적 문화요소	9
4. 유명한 폴란드인	11
4. 문화유적지와 관광명소	12
5. 국민정서	21
III. 자랑하는 산업	22
1. 자동차/부품 산업	22
2. 목재가구 산업	23
3. 크리스탈 유리 산업	25
IV. 폴란드에 투자하려면	27
1.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27
2. 투자절차	27
3. 투자 인프라 : 항만, 철도, 도로, 통신, 은행	30
V. 비즈니스 출장가이드	34
1. 비자	34
2. 통관	36
3. 통화 및 환전	38
4. 측량단위	41
5. 시차	41
6. 기후	41

7. 건강의료	43
8. 치안	43
9. 응급서비스	43
10. 휴일과 근무시간	44
11. 생활풍습	46
12. 쇼핑	46
13. 레스토랑	46
14. 관광	48
 VI. 비즈니스 디렉토리	 50
1. 관공소	50
2. 은행	52
3. 주요 경제단체	53
4. 산업별 주요 대기업	53
 VII. 부록	
1. 유통산업동향	64
2. 마케팅유의사항	67
3. 비즈니스 관광명소	73
4. 교역 및 경제동향	74
교역현황, 교역환경, 대한국교역, 경제동향	
5. 폴란드 투자환경	78
6. 폴란드 진출 한국기업 및 외국기업	80
7. 폴란드 주거환경	85

I. 한 눈으로 보는 폴란드

국 명 : 폴란드(Republic of Poland)
위 치 : 중부유럽
면 적 : 311,904Km²(한반도의 1.4배)
기 후 : 유럽서부의 해양성 기후와 동부의 대륙성 기후
수 도 : 바르샤바(Warsaw)
인 구 : 38백만 명
민 족 : 폴란드인
언 어 : 폴란드어
종 교 : 로마 카톨릭(95%)
건국(독립일) : 1918.11.11
정부형태 : 의회공화제(PARLIAMENTARY REPUBLIC)
국가원수 : 대통령 ALEKSANDER KWASNIEWSKI
입 법 부 :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460석)
정 당 : 여당 SLD(민주좌파연합)-UP (시민연대)-PSL (농민당)(258석)
정부성향 : 중도좌파

GDP : US\$1,886억 (2002)
실질경제성장률 : 1.3% (2002), 3.5% (2003 예상치)
인당 GDP : US\$4,082 (2000), US\$ 4,738 (2001), US\$ 4,882 (2002)
실 업 륜 : 18.10% (2002)
물가상승률(연평균) : 1.9% (2002)
화폐단위 : Zloty(PLN)
교역규모 (2002) : 수출-US\$41,009백만불, 수입-US\$55,112백만불
대한교역규모 (2002) : 한국의 수출 - US\$349백만불, 수입 - US\$ 47백만

[위치] 중부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경국가는 러시아(칼리닌그라 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체크, 독일 등 7개국이다.



〈폴란드 위치 : 유럽 중심〉

[인구] 인구는 38.3백만으로 유럽에서 9위, 세계에서 29위 규모의 대국이다. 이외에도 해외거주 교포는 15백만명으로 미국에 9백만명이 거주 중이다.

[면적] 면적은 31만 평방미터로 한반도의 1.4배, 유럽에서 7번째 크기이다.



〈폴란드 지도〉

[수도] 수도는 1596년 이래 바르샤바 (Warszawa)이며, 인구는 165만 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되고, 인구의 2/3가 희생된 비극을 이겨내고, 현재는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시가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르샤바까지 직항노선은 없으며, 유럽 주요 도

시(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 등)를 경유해야 한다.



〈바르샤바 소재 폴란드 왕궁〉

[경제규모] 국내총생산량 (GDP)는 1,896억불 (2002년 기준)로 한국의 1/3 수준이며, 중구 3개국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의 합계 규모 보다 크다.

[정치제도] 폴란드의 정치제도는 공산당 정부와 자유 노조의 원탁회의 (1989.4.7)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헌법에 따라 동구 국가로서는 최초로 서구식 민주주의제도인 의회공화제 (Parliamentary Republic)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 정부구성에서 총리 지명권, 전쟁 및 비상사태 선포권 등 프랑스식 대통령제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며, 의회를 최고의 국가권력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도를 운영중이며, 3권 분립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은 5년 중임이며, 직선제이다. 입법부는 상원(Senate)와 하원(Sejm)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100명, 하원은 460명이다.

사법부는 대법원(The Supreme Court), 최고행정법원(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일반법원(Common Cou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으로는 민주좌파연합 (SLD : Democratic Left Alliance), 시민플랫폼 (PO : Civic Platform), 자위(自衛)당 (Samoobrona : Self-Defence), 농민당 (PSL : Polish Peasants' Party) 등이 있다.

폴란드의 지방행정조직은 16개의 주 (Voivodship)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읍에 해당하는 Gminia, 우리 나라의 군에 해당하는 Powiat가 있다.

[언어] 서슬라브 언어 계통의 폴란드어가 유일한 공용어이며, 이는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등과 유사한 서슬라브어 계열이다. 문자는 라틴문자로서 32문자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음은 비교적 쉬운 편지이지만 치음이라고 불리는 경음이 약간 까다롭고, 악센트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단어 끝에서부터 2번째 음절이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문법은 유럽 언어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징]

- 외세의 침략에 의한 수난의 역사
- 1795년 망국 이후 끊임없는 독립 운동
- 1944년 나치 점령하의 바르샤바 봉기 등 강인한 저항정신
- 1989년 솔리대리티 노조의 민주화 투쟁으로 체제전환 성공
- 체제전환 (27개국) 중 최고 모범 경제성장 국가
- NATO, WTO, OECD 회원 가입으로 국제사회 위상 정립
- EU 회원 가입 (2004.5.1 예정)으로 서구 체제 본격 편입

II. 문화 엿보기

1. 문화특징

폴란드의 문화는 종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폴란드는 966년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여 최초의 왕국을 수립하였으므로, 폴란드의 문화는 카톨릭과 관련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폴란드는 중세부터 서구의 영향으로 서구적 문화 색채가 매우 강하며, 언어, 문학 그리고 관습에는 슬라브 문화도 공존하고 있다.

카톨릭과 관련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관한 폴란드인의 소극적인 의식도, 과다노동에 대한 교황의 부정적 교시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특징이 작용하여, 카톨릭, 교황에 대해 농담을 하면 실례를 범하는 것이 된다. 3국 분할과 공산주의 시대에 국민통합이 카톨릭에 바탕을 두었고 현재의 교황을 배출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카톨릭의 영향력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강한 나라이므로 종교적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피해의식이 있어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산주의 때문에 경제 발전이 서유럽에 비해 크게 뒤졌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도 삼가 해야 한다.

공산주의라는 고정관념 하에서 체제를 논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만약 정치 체제에 대한 대화시에는 서유럽식의 사회주의 개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95-1918의 3국 분할 시기에 지도에서 폴란드가 사라졌던 뼈 아픈 과거사로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민족적인 자존심을 자극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유럽 지도에서는 사라졌어도 민족문화의 보호, 영광된 과거의 회상, 카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인간성 등의 자유 정신에 입각한 구국정신이 바탕이 되어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는 자존심이 강하다.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체코나 헝가리 등의 국가와는 동반 대열에 올려 언급해도 무난하나, 과거 공산주의를 겪은 폴란드 동남부의 인근 국가들과는 비교를 삼가 해야 한다.

아울러 슬라브 문화의 특징으로는 서구 보다 보수적인 기질이나 슬라브의 특징인 자유분방한 기질이 강하여, 춤과 술을 좋아 한다.

2. 역사

10세기 후반 966년 미에츠크 (Mieszko) 1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피아스트 (Piast) 왕조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룬 폴란드는 14세기경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을 형성하면서 17세기까지 유럽 최대의 왕국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외세의 침략으로 1차, 2차에 이어 3차 분할로 러시아와 프로시아, 오스트리아에게 1795년-1918년 (123년)간 국토를 빼앗김으로써 망국시대를 경험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 11월 독립을 찾아,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독일에게 1939.9.1 침공을 받아 다시 나라를 빼앗겼으며, 전쟁 후에는 1944년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구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었다. 이후 바웬사를 구축으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989년 민주화에 성공하였다. 이어 1990년 바웬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은 크바스니에프스키이며, 의회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3. 상징적 문화요소

현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을 배출한 폴란드는 정통 카톨릭 국가로서 많은 종교적 문화 유산과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은 성모 발현지로서, 바르샤바 市에서 남서쪽 25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첸스토호바'의 '야스나 구라' 성당에 있는 '검은 성모상'과, 바르샤바市 서쪽 200 Km에 위치하고 있는 '리헨' 성당의 성모상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o 첸스토호바의 검은 성모상 (聖母像)



〈첸스토호바의 검은 성모상〉

첸스토호바(Częstochowa)시의 야스나 구라(Jasna Góra : 빛의 언덕)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검은 성모상은 폴란드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키면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인들은 이곳을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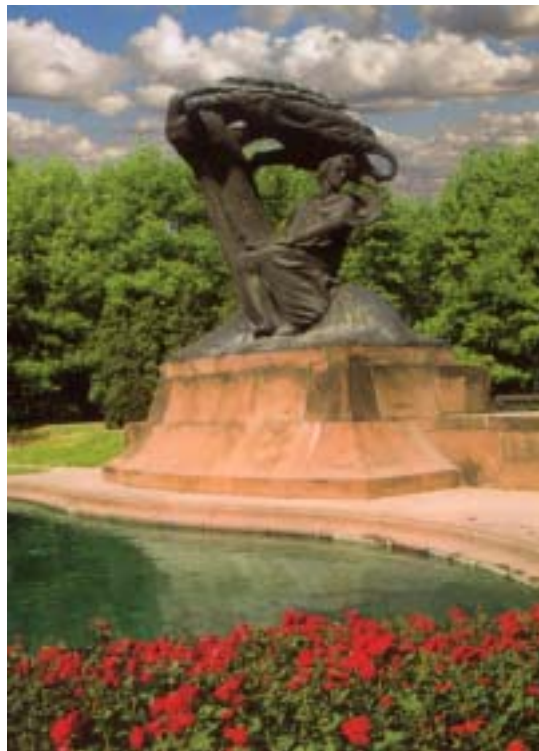
o 성모 발현지 리헨(Lichen)

또 다른 성모상으로 리헨(Lichen)의 것이 유명하다. 코닌(Konin) 근교에 있는 리헨의 성모상(애도의 성모상, sorrowful Madonna)은 1813년에 라이프치히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폴란드 출신 병사에 성모가 발현하면서 구함을 받은 이 병사가 고국으로 생환하여 자신에게 나타났던 성모상을 찾아서 봉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유명한 폴란드인

폴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유명 인사는 쇼팽, 코페루니쿠스, 헨케비츠, 퀴리 부인, 교황 바오로 2세, 바웬사 등이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 (Frederick CHOPIN, 1810-1849)은 폴란드의 전통민속 음악적 요소를 낭만주의적 요소에 결합, 독특하고 아름다운 스타일 개척하였다.



〈바르샤바 와지엥키 공원 쇼팽 동상〉

세계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하였던 코페루니쿠스 (Nicolas COPERNICUS, 1473-1543)는 폴란드의 동북부 도시 Torun에서 태어나, 천주교 신부로 활동하였으며, "코페루니쿠스 태양을 멈추게하고 지구를 움직였다" 라는 유치원 동요는 모든 폴란드 사람이 잘 아는 인용구이기도 하다.

소설 "퀴바디스" [Quo Vadis] 로 노벨문학상 수상을 수상한 작가인 헨케비츠 (Henry Sienkiewicz, 1846-1916)는 고대로마 네로 황제시대를 배경으로 기독교의 승리 및 로마제국의 멸망을 그리고 있으며, 여러 번 영화로 제작

되었다.

폴란드가 잊을 수 없는 세계적 유명 인사로는 평생 노벨상을 2회 수상하였던 퀴리부인 (Maria Skłodowska-CURIE , 1867 - 1934)이 있으며, 파리에
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소르본느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사선학을 창
시하고, "폴루토늄" 및 "라듐" 원소 공동 발견자이기도 하다.

종교계에서 세계적 유명 폴란드 인사로는 요한 바오로 2세 (John Paul II,
본명: Karol Wojtyla, 1920 - 현재) 1978년 로마 교황으로 즉위하여 현재
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비 이태리출신으로서는 500년 역사 이래 최초 사례
로 기록되고 있다.

5. 문화유적지와 관광명소

폴란드에는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World Heritage)"이
다음과 같이 9개소가 있다.

《폴란드의 세계문화유산》

- 크라쿠프의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Cracow)
- 비아보비에차 숲(Bialowieza Forest)
- 비엘리츠키 소금 광산(Wieliczka Salt Mine)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유태인 집단수용소(Auschwitz-Birkenau Con-
centration Camp)
- 바르샤바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Warsaw)
- 자모츠 舊市街地(The Old City of Zamosc)
- 토룬시의 中世式 舊市街地(The Medieval Town of Torun)
- 말보르크의 튜톤式 城砦(The Castle of the Teutonic Order in Malbork)
- 칼바리아 제브리둡스카(Kalwaria Zebrzydowska)

o 크라쿠프의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Cracow): 1978년에 지정.

16세기 폴란드의 수도를 현재의 바르샤바로 이전하기 전까지 수도였으며, 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의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중세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음.

또한 폴란드 전역을 통해 드물게도 제2차 세계대전의 戰禍를 입지 않은 덕분에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00년대의 100년 동안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내에 단 한 채의 신축 건물도 없는 것으로 유명함

o 비아보비에차 숲(Bialowieza Forest): 1978년에 지정.

1992년에는 폴란드 동부에 인접한 벨로루시(白러시아) 지역까지 보존지구로 포함 시켜 관리되고 있다.

o 비엘리츠키 소금 광산(Wieliczka Salt Mine): 1978년에 지정



(비엘레츠키 소금광산)

13세기 이래 岩鹽 鑛山으로 개발된 이래, 오늘날까지 무려 700년 이상 활용이 되고 있어 전 세계 광산 중 가장 오랜 기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함.

지하갱도 64미터에 위치한 1단계에서 지하 327미터에 위치한 제 9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 250킬로미터에 달함

지하 광산 내부를 둘러 보는데는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지하 광산내부는 평균 10도 내외로 다소 서늘하므로 관람시 복장 착용에 유의하여야 함

o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유대인 집단수용소(Auschwitz-Birkenau Concentration Camp): 1979년 지정.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의 나치 제3제국 시절에 조성된 최대 규모의 집단 수용소겸 처형장으로, 194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약 400만 명이 기아, 고문, 처형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희생자의 대부분이 유럽 각지로 부터 압송된 유대인이었음.

희생자 숫자는 통상 400만 명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舊소련이 과장되게 발표했다는설과 함께, 지속적인 사실 관계 추적에 따라 오늘날에는 150만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함. 바르샤바에서 360킬로미터, 크라쿠프시에서 6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 이 지역은 폴란드 지명으로 '오시비엥침'(Oswiecim)이라 불려오다 독일에 의해 편입되면서 독일명으로 아우슈비츠로 변경되었음. 당초에는 폴란드 등 점령지의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압송되어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나치에 의해 분류된 이른바 저질 인종이라는 집시 등을 강제 수용하여 노동력 착취는 물론 결국에는 처형시키는 대규모 처형장으로 바뀜.

o 바르샤바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Warsaw): 1980년에 지정.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여름 독일군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바르샤바 시민군이 무장 봉기를 일으킴에 따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면서 쌍방이 막대한 희생자를 낸 바 있는데, 독일군은 시민군을 철저히 괴멸시키는 한편, 쏘련군의 바르샤바진주에 앞서 퇴각하면서,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잘 축조된 舊시가 지(Old Town) 전체를 다이내마이트로 완전히 초토화시킴.

이후 폴란드는 공산 치하에 있던 1951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각계 각층의 고증 자료를 활용하고, 복구에 따른 막대한 인력 수요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료 근로 참여 등을 이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5년 만에 완전히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킴.

유네스코는 지정할 당시, 13세기의 역사를 20세기에 고스란히 복원해낸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음.

o 자모츠 舊市街地(The Old City of Zamosc): 1992년에 지정.

16세기 '얀 자모이스키'장군(Jan Zamoyski)에 의해 축조되고, 파우다(Paouda)의 건축가 베르나르도 모란도(Bernardo Morando)에 의해 설계된 곳으로, 오늘날 "가장 완벽한" 르네상스식 건축물이 보존된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o 토론시의 中世式 舊市街地(The Medieval Town of Torun): 1997년 지정.

14세기-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세식 건축물을 구비한 "한자 同盟(Hanseatic League)" 시절의 상업중심 지구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토룬은 한때 독일의 튜턴 기사단(Teuton Knights)의 거점지역중의 하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튜턴'식 건축물의 잔재가 구 시가지 곳곳에 남아있음.

현재는 교육 중심 도시이기도 한 이곳은, 地動說로 유명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 탄생지이기도 함.

o 말보르크의 튜튼式 城砦(The Castle of the Teutonic Order in Malbork): 1997년에 지정.

튜튼 기사단 시대의 중심지로서 중세식 붉은 벽돌 양식을 이용하여 축성된 대표적인 성채로 꼽히고 있음. 19세기에 일차 보수가 있었으며, 2차 대전 당시 공습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후, 또다시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진 바 있음.

내성과 외성으로 축성되고, 가운데 탑 부분은 10층 높이로 당시의 건축술로 볼 때 벽돌만으로 이만한 높이를 축조한 것은 대단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o 칼바리아 제브리돍스카(Kalwaria Zebrzydowska): 1999년에 지정.

예루살렘을 모델로 한 16세기 유행한 '마니에리즘' 양식의 건축물과 자연 풍경이 복합된 장소로, 전형적인 폴란드의 전통 민속종교인 "예수 고난(the Passion of Christ)회"의 기도 장소이기도 함.

폴란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외에 수도 바르샤바에는 관광명소가 다수 있다.

《바르샤바의 관광명소》

- 와쟁키 공원(Lazienki)>
- 바르샤바 왕궁(Royal Castle)
- 빌라노프 궁전(Palac Wilanowski)
- 무명용사비(Monument Of The Unknown Soldier)
- 국립미술관(National Museum)>

- 퀴리부인 박물관(Maria-Sklodowska Curie'S Museum)
- 쇼팽의 생가,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



〈바르샤바 구시가지 광장〉

o 와쟁키 공원(Lazienki)>



(와지엔키 공원)

18세기 후반 폴란드 최후의 왕 Stanislaw Augustus Poniatowski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 공원의 이름 와젠키는 "목욕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지역은 귀족들의 수렵장소이었는데 수렵을 마친 후 이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한다.

러시아의 여황제 애카테리나 2세의 젊은 연인으로서 그녀의 후광으로 왕이 된 Poniatowski는 정치적으로 무력하여 현실에서 도망치듯 공원의 조경에 열중했다. 그는 폴란드 영토가 러시아, 프리시아, 오스트리아의 삼국에 의하여 분할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1795년 애카테리나 2세로부터 폴란드 분할 문서의 조인을 강요당한 후에 퇴위하여, 1798년 성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o 바르샤바 왕궁(Royal Castle)

폴란드 왕국의 상징인 이 왕궁은 13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조비아(Mazovia) 공작의 요새였으며, 14세기 중반에 방어용의 큰 탑과 성벽이 세워졌으며, 15세기 초에는 벽돌로 고딕식 왕궁이 세워졌고 수개의 부속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오늘날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은 '야기에오' 왕조의 마지막 왕이던 '지기스문트 아우구스투스'왕 시절이며, 그는 종래의 건물을 '우아드로'라는 궁정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오늘날의 르네상스식 왕궁으로 변모시켰다.

스웨덴의 침입과 대형 화재로 크라코프의 바벨궁이 큰 손실을 입자, 1596년 Zygmunt Waza 3세는 수도를 바르샤바로 천도하고 이곳을 새 수도로 정했다(구시가의 입구에 높이 서 있는 높다란 원주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지기스문트왕의 동상임).

이후에도 이곳은 역대 왕조의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제 2차 스웨덴의 침입으로 왕궁이 전소되는 등 많은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시 새롭게 복구되었다.

16,17세기에는 이 왕궁이 의회(Sejm)를 포함한 정치의 중심이었으며, 폴란드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교도들에게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또한 1791년 5월 3일 이곳에서 유럽최초로 성문헌법이 상원을 통과하여 폴란드의 현대 국가 형성을 목표로 "무혈혁명"이라고 까지 불리워진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18년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왕궁은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으며, 나치의 침략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이 왕궁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주춧돌만 남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1971년부터 이 왕궁을 복구하자는 국민들의 열광에 해외 동포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의 헌금과 정성으로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 1984년에 이르러 완전히 제 모습을 찾았다.

o 빌라노프 궁전(Palac Wilanowski)



(빌라노프 궁전)

바르샤바 남쪽 교외의 빌라노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세의 사가들로부터 17세기 중엽 회교도의 침입에 대항하여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구출했다는 평가를 듣는 비엔나 전투의 영웅 '얀 소비에스키' 3세가 자신의 여름 별궁으로 건립되었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한 이 건물은 바로크식의 궁전건물과 프랑스 왕가인 부르봉가 출신인 '소비에스키'왕의 왕비가 정성을 쏟아서 조경하였다는 프랑스식 정원이 유명하다.

o 퀴리부인 박물관(Maria-Sklodowska Curie'S Museum)

구시가(Old Town)의 북쪽에 위치한 동 박물관은 퀴리부인이 탄생한 생가로, 퀴리부인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다.

소장품으로는 실험도구와 여러 기념사진들이 있으며, 방문자의 요청에 따라 퀴리부인의 일생을 담은 영화도 상영된다.

o 쇼팽의 생가,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



(쇼팽 생가 - 젤라조바 볼라)

프레데릭 쇼팽의 출생지인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는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50킬로에 위치한다.

쇼팽은 당시 이곳의 영주였던 스카르벡 백작의 먼 친척이자 프랑스어 교사였던 아버지와 평범한 여성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세계 각국의 쇼팽 음악 애호가들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물들을 기증하여, 현재 이 공원에는 약 1만 5천종의 세계 각국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쇼팽은 사망후 그의 여동생이 파리를 방문하여 그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바르샤바 구시가에 있는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했다.

6. 국민정서

《폴란드인은 어떤 성격인가 ?》

폴란드의 국민성은 기후, 역사, 종교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폴란드는 15. 16세기경 중부 유럽의 강국으로부터 군림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으로 주변강국에 의해 점령되는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

이 기간 중 15백만명이 해외로 이주했는데, 그중 약 9백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내에서 커다란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 거주 폴란드인들이나, 그 후손들은 본국인들과 활발한 접촉을 저저 왔는데, 그러한 왕래는 폴란드내 에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자유의식 고취, 합리적 사고방식 지향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민족에 의한 지배와 탄압, 국가의 소멸 등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겪으면서 폴란드 민족은 강렬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음은 물론 자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감도 지니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80년 식료품가격 인상에 반발, 노동자들이 폭동을 주도하여 정권을 타도한 사실은 여타 동구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농업집단화가 폴란드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실도 이러한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역사는 폴란드인들을 강렬한 조국애로 묶고 있다. 현 정치체제에 대한 견해차이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조국 폴란드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다. 폴란드 국민의 95 % 정도가 카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는데, 망국의 시대에는 교회 속에서만 폴란드인의 일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 또한 폴란드인에게는 조국애에 대한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렬한 조국애 이면에는 과거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열등 의식과 현실영합적인 속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III. 폴란드가 자랑하는 산업

1. 자동차 산업

폴란드의 대표산업은 자동차/부품생산 부문으로 생산액은 70억불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동 부문 종사인원은 70천명으로 전체산업 고용인구의 3.5%에 달한다.

폴란드에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는 226개사 (종업원 50명 이상 업체)에 달하고 있으며, 승용차 생산부문 주요 업체로는 Fiat, Daewoo-FSO, Opel, Volkswagen 등 4개사, 버스 및 상용차 생산업체로는 Star Trucks, Jelcz, Autosan, Solaris Bus & Coach, MAN Vehicles Poland, Volvo Poland, Scania-Kapena가 있다.

한편 폴란드내 자동차 부품 업체는 210개사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외국인 투자업체가 30% 이상인 60개사이다. 생산제품은 엔진, 범퍼, 브레이크, 기어, 타이어 등 모든 부품이 포함된다.

주요 외국인투자 부품업체로는 Delphi Automotive Systems (미국), Bosch (브레이크), Lear (시트, 도어 등), Toyota (기어박스), Valeo (클러치), Exide (배터리), TRW (시트 벨트), Isuzu (디젤엔진) 등이 있다.

폴란드의 자동차/부품의 연간 수출은 연간 48억불로 전체 수출액의 달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36.6억불에 달함으로써, 연간 1.4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 내역을 보면 엔진류 15억불, 자동차 부품14억불, 승용차 14억불, 상용차 5억불 등이다.

폴란드의 2002년도 승용차 판매대수는 308천대로, 국내산 100천대, 수입산 승용차는 208천대로 수입산이 68%를 차지한다. 반면, 승용차 생산대수는 300천대로 국내 판매 100천대를 제외한 69%인 208천대를 동서 유럽 국가에 수출하였다.

폴란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발달이 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1995년 대우자동차가 인수하였던 폴란드의

국영 자동차 생산업체인 FSO가 1951년에 설립. 운영함으로써, 폴란드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중점 육성하였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EU 가입 후 폴란드의 동서 유럽에서의 지리적 잇점, 저임금, 숙련노동력 풍부, 인프라 발달, 노동여건 양호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코자 추진 중이다.

대상지역으로는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 산업 지대가 양호하게 조성된 인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인접한 폴란드의 남부 지역 도시 (Katowice, Gliwice, Tychy, Wroclaw 등) 자동차/ 부품 생산 투자업체를 적극 유치 중이다.

- 헝가리 : Suzuki, Audi
- 슬로바키아(Trnava) : PSA Peugeot Citroen
- 체코 (Kolin) : Toyota/Peugeot
- 폴란드 : Fiat, Opel, VW (Volkswagen), Daewoo-FSO

향후 폴란드 내 주요 업체별 자동차/부품 생산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VW (Volkswagen):상용차 공장 증설(4만대에서 15만대로,178백만 유로)
- Fiat-GM Powertrain Polska : 디젤엔진 생산 (4억불)
- Toyota : 디젤엔진공장(200백만 유로),기아박스공장 (300백만 유로)
- AKS (일본) : 베어링 공장 (13백만 유로)
- Bosch (독일) : 디젤엔진 공장 (26백만불)

2. 목재가구 산업

폴란드는 목재가 풍부하여 가구산업이 발달하였다. 연간 가구 생산량은 26억불에 달하며, 생산량의 92%인 24억불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전체 수출액 점유율이 6.7%에 달하는 등 폴란드의 대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폴란드에서 생산/수출되는 가구로는 사무용 가구, 실내장식가구, 주방가구, 침실가구, 아동용 가구 등으로 다양하다.

폴란드에는 가구 생산업체가 6,477개사가 운영 중이나, 이중 종업원이 50명 이상의 중규모 이상 업체는 전체의 6%에 달하는 388개사로 나타났다.

수출도 매년 증가 추세로 1999년 20억 불, 2000년 21억 불, 2001년 24억불로 연간 5%, 14%씩 급증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2000년 3.6억불, 2001년 4억불로 폴란드의 대외교역에서 흑자가 20억불 이상 기록하고 있는 효자산업이다.

폴란드가 이와 같이 폴란드의 가구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목재 생산이 풍부하고,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에 따라 주로 독일, 스웨덴으로부터 새로운 생산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을 도입,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회사경영체제 운영, 그리고 판매기법 활용 등에 기인된 것으로 알려 졌다.

주요 생산업체로는 Mazurskie Meble International, IKEA, Jarocinskie Fabryki Meble, B Fabryka Mebli Balma, lack Red White, Forte, GFM Kollektion WIM, Furnel, ZMG Fameg, Adriana, Swarzedzkie FM, Wielkopolskie FM, Opolskie FM 등이 있다.

폴란드산 가구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36%), 독일 (24%), 영국 (10%), 벨기에 (4%), 스웨덴 (4%), EU 기타 국가 (12%) 등이다.

폴란드의 가구생산 부문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 스웨덴의 세계 유명 가구 제품 대형유통점인 IKEA는 폴란드의 가구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2~3년 이내에 폴란드 내 생산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판매장의 추가 확장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IKEA는 폴란드에 4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15개 설립해 운영해 오면서, 폴란드의 가구 생산업체 80개사와도 납품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IKEA는 2006년에 폴란드의 주요 도시인 우즈(Lodz), 비드고슈츠(Bydgoszcz), 슈체친(Szczecin) 등에도 대형 판매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KEA는 2003년도 매출액을 1억 2500만달러(5억 Pln)로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10년 이내에 매출액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폴란드 생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액도 2002년도의 5억6천만달러(23억 Pln)에서 2003년에는 6억2500만달러(25억 Pln)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클리스탈 유리 산업

1680년 경 보헤미아 (Bohemia) 지방에서 클리스탈 유리가 최초로 발명된 이후 폴란드-체크-독일 국경지역에 클리스탈 유리 가공산업이 발달하였다.

이 중 폴란드의 클리스탈 유리제품 생산업체는 1, 2차 세계대전,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을 거치면서 생산기술 전수, 시설 유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클리스탈 유리는 주방용품, 장식용품, 기념품, 꽃병, 물병, 촛대, 크리스마스 볼, 머그잔, 랜턴 등 수백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폴란드의 크리스탈 유리 제품)

특히 폴란드산 제품의 디자인은 Adam Jablonski등 유명 디자이너의 활약으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폴란드의 크리스탈 유리 제품에 대한 연간 생산량은 48백만불에 달하며, 이 중 80% 이상인 40백만불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유럽 국가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싱가포르와 대만으로도 수출 시장을 확대하였다.

폴란드산 제품은 Minex사를 통해 전세계에 자기 브랜드로 수출될 뿐만 아니라 Waterford, Royal Doulton, Ralph Lauren, Lennox Gorham, 그리고 일본의 Hoya등 세계 유명 업체의 브랜드로도 OEM 방식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폴란드 내 주요 생산업체로는 Irena, Violetta, Zawiercie, Sudety, Julia, Alicja, Beata 등이 있으며, 소규모 업체는 수십개사에 달한다. 특히 Irena사는 종업원이 1천명에 달하며, 1924년에 설립되어 약 8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동사는 크리스탈 유리 제품 중 고품질의 포도주 잔(Carafe)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IV. 폴란드에 투자하려면

1.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별구역 지원법령을 1994.10.20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다.

폴란드의 EU 가입 이전 현행 경제특별구역 인센티브는 공공지원법 (Public Assistance Act) (1994년 발효, 2001.1.1부 개정시행)에 따라, 경제특별구역 (SSE :Special Economic Zone)에 10만불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CIT : Corporate Income Tax) 감면토록 되어 있다. 입주업체중 2001.1.1 이전 입주업체는 최초 투자 이후 10년간 법인세 100% 면제, 그후 10년간은 법인세 50% 면제하였다. 그러나, 2001.1.1 이후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0% 범위내 법인세 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65% 범위내 법인세를 면제한다.

한편 폴란드 중앙정부는 2002.5.20 투자지원법 (Law on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을 통해 투자금액이 10백만 유로 이상 투자기업에게 투자금액의 25%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4,000 Euro에 상당하는 고용지원금 (Employment Grants) 보조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1인당 1,150 유로 상당의 종업원 교육훈련지원금 (Training Grants) 보조하고 있다. 끝으로 인프라구축을 위해 인프라 지원금 (Grant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을 투자비용의 50%까지 보조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동산세-Real Estate Tax, 차량세 Transport Tax) 면제 뿐만 아니라, 도로, 통신, 상.하수도, 철도 건설 등 투자기업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투자절차

현지투자법인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폴란드 약어 Sp.zo.o)와 주식회사(Joint Stock/폴란드 약어 S.A.)로 나뉘는데 설립 절차는 동일하다. 은행,

보험, 부동산 중개, 항구.공항 운영 등을 위한 회사 설립시에는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은 최소 50천주오티(US\$ 12,000/1달러=4.1PLN 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조직은 투자자 총회와 이사회로 나뉘며 감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1인 이상으로서 정관에서 정한다.이사와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500천주오티 이상이며, 등록시 자본금의 5%를 지방법원에 등록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전 준비할 서류는 유한책임회사와 같다. 폴란드에서 준비할 서류는 회사설립 신청서, 정관, 주식배분표, 이사회 의 자본금 확보 확인서, 회사 조직표 및 임원 명단 등이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O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 신고

- 관련 기관은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이다.
- 별도의 신청 양식은 없으며 투자 모회사의 법인형태, 재무구조, 영업 활동(모든 해외의 영업활동 대상국을 포함해야 함)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폴란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폴란드 회사에 대한 상기 항목의 세부 정보도 보고해야 한다.
- 연간 매출액이 25백만EURO가 넘는 회사가 폴란드 법인의 지분을 25%이상 인수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비용은 없다.

O 회사 정관 작성 및 공증

- 관련 기관은 공증 사무소이다.
-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시에도 공증이 있어야 한다.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위임자를 통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공증 사무소의 공증 검토 기간은 4주이며 수수료는 230불이다.

O 법원 등록

- 관련 기관은 지역 법원이다.
- 공증받은 서류를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한다.
- 준비 서류는 이사회 의 법인 설립 결의서, 공증된 정관, 조직 및 이사회 위원내역, 이사회 위원 서명 사본, 자본금 납입 및 지분내역, 폴란드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의 승인서, 신문 공고 등이다.

O REGON 번호 취득

- 관련 기관은 지역 통계청이다.
- 통계청 관리의 번호이다.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다.
- 통계청의 RG-1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 단계의 기관에서 받은 승인서 등과 함께 통계청에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2일이며 비용은 없다.

O 경제부 신고

- 관련 기관은 폴란드 경제부이다.
- 법원에서 받은 회사 등록 확인 서류와 등록 번호, REGON 번호, 정관 등의 사본을 경제부에 제출한다. 허가사항은 아니며 단지 신고만 하는 것으로 비용은 무료이다.

O 은행구좌 개설

- 관련 기관은 외국환은행이다.
- 은행의 구좌 개설 신청서, 경제 활동 승인서, REGON 번호 확인서, 회사 정관 등을 제출한다. 구좌 개설 신청서 이외에는 원본을 제시한 후 회수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1주 정도이고 비용은 없다.

O 납세번호 취득

- 관련 기관은 지역 세무소이다.
- 세무소의 신청서, 경제활동 승인서, REGON 번호 확인서, 은행구좌번호, 사무실 매입 및 임차서류 등을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3주 정도이며 비용은 40PLN(US\$11)이다.

3. 투자 인프라

가. 항만

폴란드 내 항만은 5개로, Gdansk, Gdynia, Kolobrzeg, Szczecin, Swinoujscie 등이 발틱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외교역시 항구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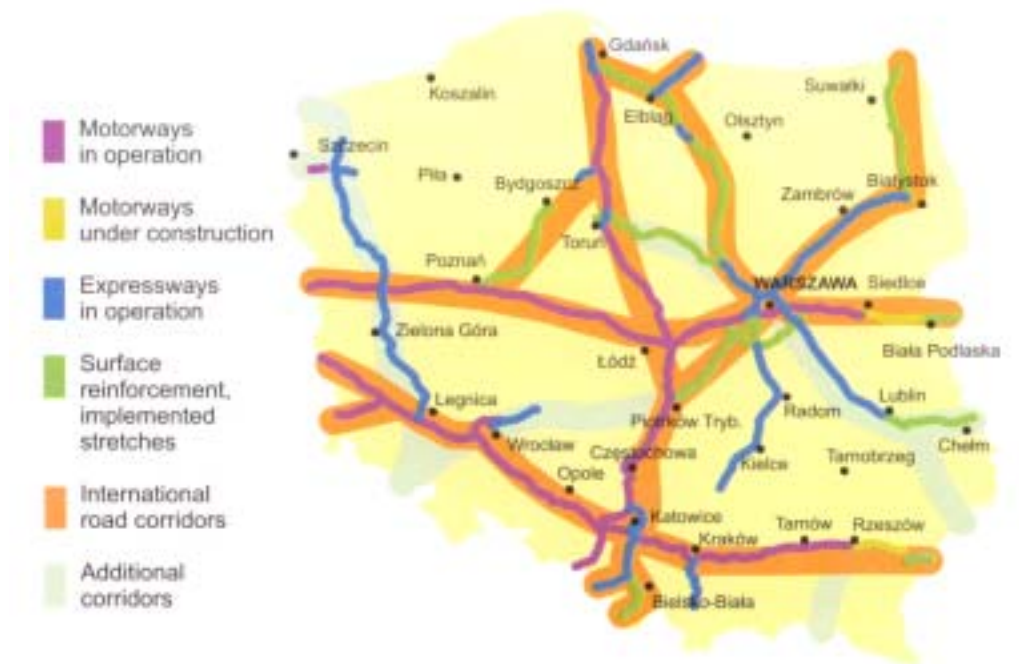
반면, 폴란드에서는 내륙 수로운송 이용도는 총 화물 운송량의 0.8%를 차지하며, 철도, 도로 이용도 대비 극히 낮으며, 내륙 수로 운송 연장은 총 3,812 km에 달하며, 이용하는 강은 Odra, Vistula, Warta, Noteć 등으로 주로 Warsaw, Szczecin, Gdansk간의 모래, 자갈, 석탄, 철광석, 비료 등을 수송하는데 이용된다.

나. 도로

폴란드의 도로 총 연장 (2001년 기준)은 377천 km로 이 중 250천 km가 포장 도로이다. 도로 수송 이용도는 전체 화물 수송량의 81.4%, 여객 수송량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의 고속도로 총 연장 (2001년 기준)은 337 km, 준고속도로는 401 km이나, 향후 2,600 km에 달하는 7개의 주요 고속도로를 역점적으로 건설 계획 중이다.

PROGRAMM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MAIN ROAD NETWORK IN POLAND AS IN 2010



〈폴란드의 고속도로 현황 및 계획〉

이 중 하기 3개 고속도로는 건설 중이다.

- . A1 고속도로 : 폴란드 남북 연결 ; 그단스크-카토비체
- . A2 고속도로 : 폴란드 서부-중동부 연결 ; 독일 국경 포즈난 바르샤바 - 벨라루스
- . A4 고속도로 : 폴란드 서부-남동부 연결 ; 독일 국경 카토비체 크라코프 - 우크라이나

다. 철도

폴란드의 철도 총 연장은 21,119 km로 광궤 철도이며, 59.4%는 전기 추진 방식으로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철도 수송 이용도는 총 화물수송량의 18.9%로 유지 운용 비용의 상승으로 철도 이용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공항

폴란드의 국적 항공사는 LOT이며, 50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전세계 31개국 49개 도시간 운항 중이다. 2001년도 이용객 인원은 320만명으로 이 중 70%가 국제로선을 이용했다.

한편 폴란드 내 국제공항은 Warsaw-Okecie, Krakow, Poznan 등이 있으며, 국내선 공항으로는 Warsaw-Okecie, Krakow, Poznan, Gdansk, Katowice, Wroclaw, Szczecin, Rzeszow 등이 있다.

마. 통신

유선 전화는 2001년 말 기준 11백만대가 보급되어, 100명당 2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중요 사회간접자본인 통신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선전화 가입자는 2002년 14백만이며, 2010년 17백만명이 목표이다.

폴란드는 유선 전화의 보급이 낮음에 따라 이동전화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2002년 3월 기준 10백만명에 달하여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28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 2001년말 기준 폴란드의 PC 보급대수는 3.3백만대로 보급률이 8.54%로서 스웨덴의 53%, 미국의 50%, 영국 39%, 독일 30%, 스페인의 18%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00명당 18대로서 인근국인 헝가리, 체코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통신환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에 의하면 폴란드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전체인구의 9.8%인 3.8백만명으로 전년도의 7.2%인 2.8백만명 대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도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2001년 기준 ADSL 가입자는 60천명, 케이블 인터넷 가입자는 110천명이나, 위성 인터넷은 2002년 하반기부터 Eutelsat사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 은행

폴란드 내 상업은행은 65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30개 은행이 외국자본투자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부분 민간 은행이나, 국영은행은 PKO Bank Polski 등 3개이다. 외국자본 투자가 활발하여 은행의 총자본금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은행 부문의 자산 총액은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폴란드의 은행 이용 인구는 체제전환 이후 급증하여,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은행구좌 개설인구 비율은 1995년 21%에서 2002년 말 현재 60% 이상으로 2백만 구좌에 달했다..

은행 서비스의 발달과 함께 직불카드 (Payment Cards)와 신용카드 (Credit Cards) 사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VISA Electron, Maestro 등 직불카드 이용자는 14백만명, VISA, MasterCard, Diners Club 등 신용카드 이용자는 600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금자동인출기도 전국에 6,650개 설치되어 있다.

유선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폴란드의 은행도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폴란드 내 인터넷 은행 이용자는 1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2-3배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서명 (e-Signature) 사용 법안이 2002년에 통과됨으로써 향후 인터넷 뱅킹 이외에도 B2B, B2C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폴란드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 구좌를 개설토록 되어 있다. 은행 구좌 개설 후, 기업은 세무 기관에 은행구좌를 정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V. 비즈니스 출장가이드

1. 비자

한-폴란드간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시 90일내 체류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한국인의 경우 임시 거류증 또는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임시 거류증은 12개월 이상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노동허가 취득자, 개인사업자, 유학생, 폴란드 국민과 결혼한 자 등이 대상이다.

영주권은 폴란드와 지속적인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관계를 가진 자로서 폴란드 내에 주택과 소득원을 보유하고, 임시 거류증을 발급 받아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다.

임시 거류증은 폴란드 주정부 또는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신청할 경우에도 임시 거류증은 폴란드의 해당 주 정부에서 발급한다.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2년(단, 총 체류기간은 10년 초과 불가)이며,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 60일전에 해야 한다.

체류기간이 90일을 넘거나 폴란드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법에 따라 국경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입국 외국인에게 폴란드 체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일일 기준 100Pln(최소 총액 500Pln), 16세 이하는 50Pln(최소 총액 300Pln)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 목적은 폴란드 동쪽 국가로부터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 입국시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출입국 절차

출입국 심사 및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 도착 후 약 20 - 30분 정도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입국시는 입국심사 및 세관검사의 순이며 검역절차 및 확인은 없다. 출국시는 세관검사, 출국심사의 순이다.

통관시에는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녹색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면 된다. 녹색 세관 검사대를 통과할 때 세관원이 입국자의 수하물이 많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외화 반입 및 면세품 보유한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같으며 다음과 같다.

- 외화: Euro5,000 상당
- 악기, 타자기, 카메라, 캠코더 등: 각 1대씩
- 카메라 필름: 12롤
- 카세트 테이프: 5개
- 고가 운동기구(씨핑기구, 보트, 싸이클, 스키, 낚시대 등): 각 1대씩
- 보석류(금, Platinum, 천연석 소재): 50g
- 가공 육류: 2kg
- 천연육류: 1kg
- 낙농제품: 1kg
- 초콜렛 및 초콜렛 제품: 1kg
- 커피: 500g
- 보드카 및 위스키: 1리터
- 포도주: 2리터
- 맥주: 5리터
- 담배: 250개피
- 시가: 50개피

- 출입국 유의사항

풍토병 등에 대비한 예방 접종은 없다.

입국시 외화 소지금액이 1인당 Euro5,000 (약 US\$ 4,500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한 증서(3개월간 유효)가 있어야 출국할 때 문제없이 재 반출할 수 있다. 반입 증서가 없는 5,000Euro 초과외화에 대해서는 압류되며, 압수에 대한 이의 사항 발생시에는 소송을 통해 화불이 가능하다.

입국자의 보유 물건이 면세품의 보유 한도 이내이라도 품목의 종류가 많아서 개인 여행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예: 상업적인 목적) 과세될 수 있다.

주류, 식품, 담배 등의 반입시에는 면세품 보유 한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들 품목의 경우 폴란드 관련 부처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한도를 넘어서면 압류 당할 가능성이 높다.

2. 통관

상품의 수출입은 무기류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자유롭다. 그러나 Homologation이 필요한 자동차 등의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의 기술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 등도 마찬가지로 보건관청의 검사가 필요하다.

통관시 수입물량과 금액이 적혀 있는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상품의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해당 세관은 수입상품의 통관 후,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3년까지 수입 통관절차를 재검증할 수 있으며 만약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 세관 주도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재 폴란드 세관이 수입 통관시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은 물량 또는 금액의 언더벨류 여부이다.

- 수입상품 통관조사

수입상의 이의 신청과 세관의 조사는 Customs Code, Tax Law, Criminal-Taxation Law에 근거한다. 수입 통관의 조사 요구는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세관의 자체 판단 하에 시작할 수도 있다.

세관의 수입통관 검증에는 합법적인 수단이 모두 동원될 수 있는데, 그 예로 통관서류, 관련자 진술, 세금서류, 전문가 의견 등이다.

조사결과는 세관의 공식적인 확인으로 끝나며 조사중간에 범법 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만약 세관의 자체 판단으로 수입상의 범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관될

수도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 범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관세, 벌금 등을 내야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세관의 조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세관은 수입상의 이의신청에 따라 결정 사항의 시행을 유보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수입상은 세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의 예치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수입상은 세관의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폴란드 중앙 세관장을 수신처로 하되 관련 세관장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에서 수입상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기결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관련 세관에서 수입상의 이의 신청 내용이 옳지 않고 세관의 기 결정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세관장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세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중앙세관장에게 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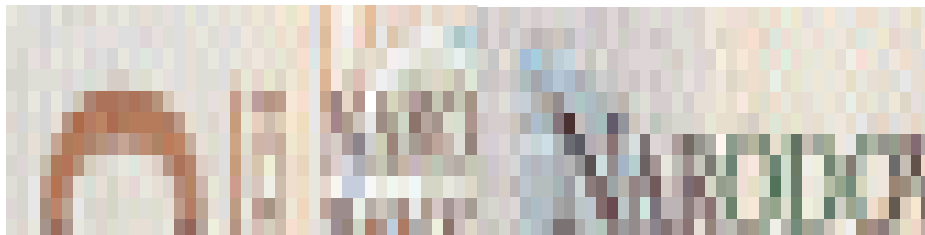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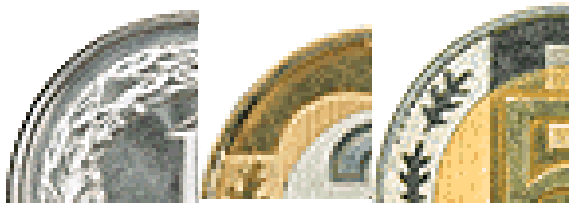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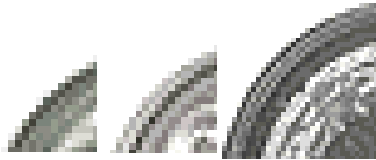
중앙세관장은 해당 세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받은 후 2개월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개월 동안 중앙세관장은 관련 세관에 추가적인 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중앙 세관은, 관련 세관 결정의 재확인, 관련 세관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지시, 수입상의 이의신청 거부 등 3가지 형태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중앙세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입상은 중앙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대신 중앙세관의 결정후 30일 이내에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에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 후부터 수입상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3. 통화 및 환전

- 화폐단위





(폴란드의 화폐 : 동전, 지폐)

화폐단위는 주워티(Zloty ,약칭: ZL 또는 Pln)이다. 1'주워티'는 100'그로셰'(Groszy) 이다.

지폐는 10, 20, 50, 100, 200 주워티가 있고, 동전은 1, 2, 5, 10, 20, 50 그로셰가 있다.

통상 1US\$는 4.0pln 이며, 1Pln은 한국 원화로는 약 300원으로 보면 되나, 수시로 환율이 변동되고 있다.

95년 1월 1일부로 '주워티'화를 1만대 1로 액면 절하한 이후 신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종전의 주워티 화폐는 9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했었고, 96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유통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까지는 시중 은행에서 신 '주워티'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2004.5.1부 EU에는 가입하나, EURO화 채택은 2007년 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

2000년 4.12일부터 변동환율제가 시행중이다.

. 94년 이후 환율(달러 대비)

(단위:Pln)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3
연평균	2.4244	2.6965	3.2808	3.4937	3.9675	4.3464	4.0985	4.0809	-
연도말	2.4680	2.8579	3.5256	3.5040	4.1483	4.1432	4.0155	3.8388	4.0521

주1) 자료원 : 중앙은행

주2) 95년 10,000대 1의 디노미네이션 단행.

- 환전

시내에 있는 칸토르(Kantor/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은행의 환율은 칸토르보다 못하다.

"칸토르"는 90년초 정부의 독점적인 외환관리가 풀리면서 등장했는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이 운영한다. 99년 현재 전국에 3,500여개의 칸토르가 있다. 특히 바르샤바 시내에는 요처에 많기 때문에 찾는데 어렵지 않다.

칸토르에서 외환의 매입, 매도가 모두 가능하며 환전액 제한은 없다. 동전은 환전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해주더라도 액면의 60% 정도로만 쳐준다.

칸토르는 환전시의 매입,매도율 차이로 이윤을 확보하며 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다. 대개 아침 8시-저녁 5시 사이에 개점하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환율이 좋지 않다.

또한 폴란드에는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은행은 구좌 보유자에 한해서만 입출금시 환전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에서도 투숙객을 위해 환전이 가능하다. 호텔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급적 공항내 환전소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만약 바르샤바의 오펜치 공항에 도착한 후 환전이 반드시 필요하면 공항 1층보다 2층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

칸토르 간에도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3-4 군데의 칸

토르를 둘러보고 가장 좋은 환율의 칸토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종합하면, 폴란드에서 환전시 환율이 유리한 환전장소의 순서는 칸토르, 은행, 호텔, 공항내 환전소 등이다.

4. 측량단위

- 도량형

거리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무게는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한다.

- 전기규격

220 Volt, 50 Hz이다. 전원 소켓에 어스용 폴이 돌출된 소켓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전기/전자기기용 전원소켓을 지참하여 폴란드에서 사용코자 하는 경우 어스용 폴이 돌출된 소켓에도 사용 가능한 겸용 소켓을 선택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폴란드에서는 전류가 50 Hz이므로, 한국산 전기/전자 기기를 폴란드에서도 사용코자 할 경우 50 Hz/ 60 Hz 겸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시차

한국과의 시차는 GMT+1, KST-8시간이나, 하절기 서머타임 적용시는 KST-7이다. 즉, 폴란드의 하절기 서머타임 적용(4월-10월)시기에는 한국의 16:00는 폴란드의 09:00이며, 폴란드의 동절기 서머타임 해제(11월-3월)시기에는 한국의 17:00가 폴란드의 09:00이다.

서머 타임이 해제되는 겨울철에는 오후 3시만 되어도 어두워져 야외 활동이 어렵다.

6. 기후

- 기후특성

폴란드는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크지 않다.

폴란드는 북위 49도-54도, 동경 14도-24도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부 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부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 (12월-3월) 최저 온도는 -20 ℃도, 여름 (6월-8월) 최고 온도는 35℃이며, 연평균 기온은 6-8.8℃이다. 1월의 평균 온도는 -4℃, 7월은 19℃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고, 평야 지대 500-700mm, 중부 지역 500mm이하, 남부 산악 지대 1,000-1,100mm이다. 평균적으로 우기인 여름철의 강우량은 겨울철의 약 두 배이다.

적설일수는 동남부가 40일 이하, 동북부 90일 이상, 0℃ 이하 일수는 80-130일이다.

봄은 겨울과 봄 날씨가 계속 교차 반복되다가 4월부터 햇빛이 본격적으로 나면서 시작된다.

여름은 6-8월로서 건조한 편이다. 매우 무더울 때는 한 차례 정도 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의 평균 온도는 18℃이고 4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가을은 9월부터 약간씩 추워지면서 시작한다. 9월은 비오는 날이 많다. 하루에도 날씨 변동이 심하다.

겨울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겨울철은 춥고 구름이 낀 날이 대부분이고, 눈이 내릴 때가 많다.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나 기간이 길지 않다. 겨울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은 편이다.

7. 건강 의료

폴란드 국민은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비가 얹거나 이는 국영병원에 한하며 외국인들은 주로 개인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용은 비싸지만 시설 및 의료진 수준은 국영 보다 좋다.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없이는 구입할 수 없으나 두통약 정도는 가능하다. 약국은 Apteka 라는 글씨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중앙역 등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다.

8. 치안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살인, 마약밀수, 인신매매 등 강력 조직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버스나 전차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소매치기와 야간 기차에서의 강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국경을 넘는 야간 기차에는 강력한 마취제를 살포한 뒤, 강탈을 하는 경우도 있다.

Skin Head족 등 불량배와 마피아가 있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알려진 우범지역은 기차역, 야간의 Old Town 주변, '비스와' 강 동쪽 북부의 프라가(Praga)지역 등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기는 하나,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베트남, 중국인에 대해 간혹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9. 응급서비스

-비상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비 고
경찰	997	교통사고 포함
화재	998	
응급환자	999	
전화안내	911	
24시간약국	825-6986	바르샤바 중앙기차역 (Central Station)구내 소재
카드분실신고	625 4030	Amex 카드
	515 3000	비자/마스터카드(24시간운영)

10. 휴일과 근무시간

- 공휴일 지정 방식

공휴일은 부활절과 성체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자로 확정되어 있다.

공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있는 샌드위치 데이는 통상 쉬며, 그 다음주의 토요일에 정상 근무한다. 또한 정부는 매년 초 샌드위치 데이가 있을 경우 정부 부처가 휴무할 것인가를 발표하는데 이 관례를 민간 부문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선거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2000-2003년도 공휴일 일정표>				
공휴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신정	1. 1	1. 1	1. 1	1.1 (수)
부활절	4.24	4.16	4. 1	4.20-21(일,월)
노동절	5. 1	5. 1	5. 1	5.1 (목)
제헌절	5. 3	5. 3	5. 3	5.3 (토)
성체일	6.22	6.14	5.30	6.19 (목)
성모승천일	8.15	8.15	8.15	8.15 (금)
만성절	11. 1	11. 1	11. 1	11.1 (토)
독립기념일	11.11	11.11	11.11	11.11 (화)
성탄절	12.25-26	12.25-26	12.25-26	12.25-26 (목,금)

주: 현지 노동법에 의거, 공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치는 경우, 전일 또는 익일을 휴무함 [예시: 5.3(토) 제헌절로 인해 5.2(금) 휴무]

- 출장지양 기간

연휴가 있는 주의 출장은 피해야 한다. 폴란드인들은 휴가를 연휴와 연결하여 일주일 이상 쉬는 경우가 많다.

하계 휴가시즌은 6월 마지막 주에서 8월말까지이다. 평균적인 폴란드인의 휴가 일수는 연간 30일이다.

12월-1월까지지는 성탄절, 연말 연시라서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월에도 추운 계절 탓에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 근무시간

주요 기관 및 장소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관 공 서	08:15 - 16:15 (토요일 휴무)
	08:00 - 16:00 (토요일 휴무)
은 행	08:00 - 14:00 (토요일 영업) (은행 본점만 토요일에 대부분 영업함에 유의)
국영기업	08:00 - 15:00 (토요일 휴무)
민간기업	08:00 - 16:00 (토요일 휴무)
	09:00 - 17:00 (토요일 휴무)
레스토랑	13: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주 유 소	08:00 - 20:00 (토, 일요일 영업)
백 화 점	10:00 - 19: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단축)
식료품점	06:00 - 20:00 (일요일 휴무)
관 광 지	08/10 - 16/19 (토,일 개장/ 월요일 휴무)

관공서의 대민 서비스 업무는 공무원의 근로시간보다 짧으며 요일마다 시간대가 다른데 평균적인 대민 서비스 업무 시간대는 10:00-15:00 이다.

노동법은 일일 8시간 근무 중 15분을 점심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점심시간은 길어야 30분내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경우 업무성격상 1시간으로 정한 곳도 있다.

일반 상점의 경우 길어도 저녁 8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급한 생필품은 주유소

를 이용한다.

11. 생활풍습

가족중심의 생활이 보편적이며, 근무후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절대적으로 가족이 모여, 1-2명의 자녀에 성년이 되면 분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다.

파티가 생활화 되어 있으며, 파티시에는 춤과 음악을 즐기며, 친지 가정 방문 시에는 꽃 선물이 일반화되어 있다.

카톨릭의 영향으로 본인 세례명에 해당하는 성인의 축일을 기념하며, 생일 보다 더 큰 행사를 가진다.

보행시나 착석시 엘리베이터 등 사용시 항상 여자 우선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여성에게는 손 등에 키스하는 것도 생활화 되어 있다.

12. 쇼핑

폴란드의 특산품으로 호박(Amber)과 전통 술 '보드카'가 유명하다. 구시가 지내에 호박 취급점이 있으며, 시내 각처와 호텔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Zubrowska" 보드카는 독특한 향이 나는 풀잎을 넣고 만든 것으로 폴란드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다. 이외에도 "Chopin" 보드카는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선물 증정용으로 구입된다. 대체로 폴란드산 보드카 가격은 50 pln (14불) 내외이다.

손으로 수를 놓은 폴란드 특산 식탁보도 이색적인 기념품이 될 수 있는데, 폴란드 민속품 판매 체인인 Cepelia에서 구입할 수 있다. Cepelia는 구시가지에 많이 있다.

13. 레스토랑

- 폴란드 식당

폴란드 전통음식은 돼지고기에 빵가루를 익혀 구운 Pork Chop이며, 양배추 절임과 Beet를 갈아 만든 Salad와 함께 나온다.

식사 시 즐겨 마시는 술은 대개 보드카, 맥주, 포도주 등이다. 폴란드산 맥주는 유럽식으로 맛이 진하며 독특한 쓴맛이 있고, 포도주는 주로 헝가리산과 불가리아산을 주로 마신다.

주요 폴란드 메뉴는 타타르(Tatar/폴란드식 육회), 샤슈윅(Szaszlyk/ 돼지고기, 소고기,햄,양파 등의 꼬치구이), 비고스(Bigos/ 양배추,버섯,소세지 등을 넣고 삶은 요리), 바르슈츠(Barszcz/ Beet를 갈아 만든 전통 스프로서 감기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짐), 카푸스타 키쇼나(Kapusta Kiszona/ 양배추 절임) 등이 있다.

식당주소	전화	구분
Arkadia	Rynek Starego Miasta18/20	(22)635 9214 유럽식
Belvedere	New Orangery, Lazienki Park	(22)841 4806 유럽식
Bazyliszek	Rynek Starego Miasta 3/9	(22)831 1841 유럽식
Cafe Eljat	All. Ujazdowskie 47	(22)628 5472 유럽식
Fukier	Rynek Starego Miasta 27	(22)831 1013 유럽식
Klub Aktora	Al. Ujazdowskie 45	(22)628 9366 유럽식
Konstancja	Ul. Zrodlna 6/8	(22)756 4325 유럽식
La Boheme	Pl. Teatralny 1	(22)692 0681 유럽식
Przy Zamku	Plac Zamkowy 15/19	(22)831 0259 유럽식
Blue Cactus	Ul. Zojaczowska 11	(22)651 2323 미국식

- 동양 식당

식당	주소	전화	구분
Bliss	Ul.Boczna 3	(22)826 3210	중국식
Pekin	Ul. Senatorska 27	(22)827 4804	중국식

Maharaja	Ul. Marszalkowska 34	(22)621 1392	인도식
Taj Mahal	Ul. Brzozowa 27/29	(22)831 8926	인도식
Azalia Thai	Ul. Filtrowa 70	(22)658 0068	태국식
Ha Long	Ul. Emilii Plater 36	(22)620 1523	베트남식
Inaba	Ul. Nowogrodzka 84/86	(22)622 5955	일본식
Tokio	Ul. Dobra 17	(22)827 4632	일본식
Tsubame	Ul. Foksal 16	(22)826 5127	일본식

- 한국 식당

식당	주소	전화	구분
서울 가든	Ul. Wiertnicza 102	(22)642-1618	한국/일본식
한강(Han Kang)	Ul. Walbrzyska 11,lok 159	(22)549-9152	한국/일본식
아리랑	ul. Wolnosz 7	(22)862-2000	한국/일본식
라스 (Las)	Ul. Kostki Potockiego 24A	(22)642-1471	한국/일본식

14. 관광

- 여행준비

한국과 거의 같은 계절이지만, 한국 보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추운 편이다.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긴팔과 외투를 입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무덥지는 않으며, 겨울철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은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 식수

석회질이 많고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수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수도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물은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 저기압

폴란드는 기압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편두통이 있을 수 있다. 취침 전에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저기압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 한국인 운영 상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4개소), 한국식품점 (1개소), 선물가게 (1개소) 등이 있다.

- 팁 관행

일반적으로 10%정도이다. 주로 음식점, 호텔, 이발소, 카페 등에서는 팁을 기대한다.

VI. 비즈니스 디렉토리

1. 관공서

경제, 노동, 사회정책부

주소 : Pl.Trzech Krzyzy 3/5, 00-950 Warszawa

전화 : (22)693 5000 / 팩스 : (22)628 4872 / 인터넷 : Wwww.Mg.Gov.Pl

재무부

주소 : Ul.Swietokrzyska 12, 00-916 Warszawa

전화 : (22)694 5555 / 팩스 : (22)826 6352 / 인터넷 : Wwww.Mofnet.Gov.Pl

국고부

주소 : Ul.Krucza 36, 00-522 Warszawa

전화 : (22)695 8000 / 팩스 : (22)621 3361 / 인터넷 : Wwww.Mst.Gov.Pl

법무부

주소 : Al.Ujazdowskie 11, 00-950 Warszawa

전화 : (22)628 44 31 / 팩스 : (22)621 3095

내부행정부

주소 : Ul.Batorego 5, 02-517 Warszawa

전화 : (22)621 0251 / 팩스 : (22)628 7488 / 인터넷 : Wwww.Mswia.Gov.Pl

외무부

주소 : Al.Szucha 23, 00-580 Warszwa

전화 : (22)623 9000 / 팩스 : (22)629 0500 / 인터넷 : Wwww.Msz.Gov.Pl

교육부

주소 : Al.Szucha 25, 00-918 Warszawa

전화 : (22)628 0461 / 팩스 : (22)628 6953 / 인터넷 : Wwww.Men.Waw.Pl

문화예술부

주소 : Ul.Krak.Przedm. 15/17, 00-071 Warszawa

전화 : (22)620 0231 / 팩스 : (22)826 7533 / 인터넷 : Www.Mkis.Gov.Pl

국방부

주소 : Ul.Klonowa 1, 00-909 Warszawa

전화 : (22) 628 0031 / 팩스 : (22) 687 1393

농업식품부

주소 : Ul.Wspolna 30, 00-930 Warszawa

전화 : (22)623 1000 / 팩스 : (22)623 2750 / 인터넷 : Www.Minrol.Gov.Pl

교통해양부

주소 : Ul.Chalubinskiego 4/6, 00-928 Warszawa

전화 : (22)630 1000 / 팩스 : (22)830 0261 / 인터넷 : Www.Mtigm.Gov.Pl

보건부

주소 : Ul.Miodowa 15, 00-952 Warszawa

전화 : (22)831 2144 / 팩스 : (22)831 1212 / 인터넷 : Www.Mzios.Gov.Pl

투자유치청 (PAIIZ)

주소 : ul. Bagatella 12, 00-585 Warszawa

전화 : (22)334-9800/ 팩스: (22)628-4651 / 인터넷 : Www.Paiz.Gov.Pl

기술청

주소 : Ul.Krucza 38/42, 00-512 Warszawa

전화 : (22)629 4151 / 전화 : (22)628 3611 / 인터넷 : Www.Att.Gov.Pl

중앙은행

주소 : Ul.Swietokrzyska 11/21, 00-919 Warszawa

전화 : (22)653 1000 / 팩스 : (22)620 8518 / 인터넷 : Www.Nbp.Pl

조달청

주소 : Al.Szucha 2/4, 00-582 Warszawa

전화 : (22)694 7141 / 팩스 : (22)628 8938 / 인터넷 : Www.Uzp.Gov.Pl

통계청

주소 : Al.Niepodleglosci 208, 00-925 Warszawa

전화 : (22)608 3000 / 팩스 : (22)608 3863 / 인터넷 : Wwww.Stat.Gov.Pl

관세청

주소 : Pl.Powstancow Warszawy 1, 00-030 Warszawa

전화 : (22)826 1031 / 팩스 : (22)827 3427 /

인터넷 : Grazyna.Barczewska@Guc.Ac.Gov.Pl

산업개발청

주소 : Ul.Wspolna 4, 00-926 Warszawa

전화 : (22)628 2350 / 팩스 : (22)628 0934 / 인터넷 : Wwww.Arp.Com.Pl

2. 은행

-상위 10대 은행(매출액 기준)

Pko S.A.

주소: Ul. Grzybowska 53/57, 00-950 Warszawa

전화 : (22)656 0000 / 팩스 : (22)656 0004 / 인터넷 : Wwww.Pekao.Com.Pl

Pko Bp

주소 : Ul. Pulawska 15, 00-950 Warszawa

전화 : (22)521 8641 / 팩스 : (22)521 8642 / 인터넷 : Wwww.Pkobp.Pl

Bh S.A.

주소 : Ul. Chalubiskiego 8, 00-950 Warszawa

전화 : (22)690 4792 / 팩스 : (22)830 0113 / 인터넷 : Wwww.Bh.Com.Pl

Bph S.A.

주소 : Ul. Na Zjezdzie 11, 30-527 Krakow

전화 : (12)422 3333 / 팩스 : (12)618 7187 / 인터넷 : Wwww.Bph.Pl

Bank Gospodarstwa Krajowego

주소 : Ul. Lucka 7/9, 00-958 Warszawa

전화 : (22)627 0386 / 팩스 : (22)658 6711 / 인터넷 : Wwww.Bgk.Com.Pl

Big Bank Gdanski

주소 : Ul. Kopernika 36/40, 00-924 Warszawa

전화 : (22)657 5000 /팩스 : (22)826 7180

Bank Slaski

주소 : Ul. Warszawska 14, 40-950 Katowice

전화 : (32)253 0337 / 팩스 : (32)253 7852 / 인터넷 : Wwww.Bsk.Com.Pl

Bre Bank

주소 : Ul. Senatorska 18, 00-950 Warszawa

전화 : (22)829 0000 / 팩스 : (22)829 0081 / 인터넷 : Wwww.Bresa.Com.Pl

Powszechny Bank Kredytowy

주소 : Ul. Towarowa 25A, 00-958 Warszawa

전화 : (22)531 8000 / 팩스 : (22)531 8705 / 인터넷 : Wwww.Pbk.Pl

Kredyt Bank Pbi

주소 : Ul. Kasprzaka 2/8, 01-211 Warszawa

전화 : (22)634 5400 / 팩스 : (22)634 5335 / 인터넷 :

Wwww.Kredytbank.Com.Pl

3. 경제단체

Government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주소 : Ul.Wspolna 4, 00-926 Warszawa

전화 : (22)661 8111 / 팩스 : (22)621 2550

Polish Chamber Of Commerce

주소 : Ul.TrzyBacka 4, 00-074 Warszawa

전화 : (22) 630 9600 / 팩스 : (22)827 4673 / 인터넷 : Wwww.Kig.Pl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주소 : Ul.Sienkiewicza 12, 00-010 Warszawa

전화 : (22)622 6627 / 팩스 : (22)828 6069 / 인터넷 : Www.Case.Com.Pl

Adam Smith Research Centre

주소 : Ul.Bednarska 16, 00-321 Warszawa

전화 : (22)828 4707 / 팩스 : (22)828 0614 / 인터넷 :

Www.Adam-Smith.Pol.Pl

Institute For Market Economy Researches

주소 : Ul.Kolobrzaska 16, 02-923 Warszawa

전화 : (22)651 8660 / 팩스 : (22)651 8662 / 인터넷 : Www.Ibngr.Edu.Pl

Institute For Economic Studies(Pan)

주소 : Ul.Marszalkowska 77/79, 00-683 Warszawa

전화 : (22)629 9146 / (22)629 5897

Institute For Researches Of Economic Situation And Prices

주소 : Ul.Frascati 2, 00-483 Warszawa

전화 : (22)629 5892 / 팩스 : (22)628 1777 / 인터넷 :

Www.Ikchz.Warszawa.Pl

Institute For Economic Development

주소 : Ul.Rakowiecka 22, 02-521 Warszawa

전화 : (22)849 5327 / 팩스 : (22)849 5327

Market &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

주소 : Ul.Krowoderska 59/6, 31-141 Warszawa

전화 : (22)646 3021 / 팩스 : (22)622 6351 / 인터넷 : Www.Cem.Pl

Polish Banking Institute

주소 : Ul.Nowogrodzka 22, 00-511 Warszawa

전화 : (22)622 5237 / 팩스 : (22)622 9896 / 인터넷 : Instytut@Bib.Com.Pl

Business Centre Club

주소 : Pl.Zelaznej Bramy 2, 00-529 Warszawa

전화 : 22 627 17 19 / 팩스 : 22 621 84 20 / 인터넷 : Wwww.Bccnet.Com.Pl

Polish Cha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주소 : ul. Nowogrodzka 31, RM 204, 00-511 Warszawa, Poland

- 전화 : (48 22) 628 2260/2406- 팩스 : (48 22) 628 5536- 홈페이지 :

www.piit.org.pl/index_eng.html - e-mail : piit@ikp.pl

4. 산업별 주요 대기업

-석유화학부문

Polski Koncern Naftowy Orlen S.A.	
주소 :	ul. Chemik◆w 7, 09-411 P◆ock
전화 :	(48 24) 365 00 00
팩스 :	(48 24) 365 28 41
홈페이지 :	www.orten.pl
업종 :	Oil processing
Polskie Górnictwo Naftowe i Gazownictwo S.A.	
주소 :	ul. Krucza 6/14, 00-537 Warszawa
전화 :	(48 22) 583 50 00
팩스 :	(48 22) 583 58 56
홈페이지 :	www.pgnig.com.pl
업종 :	Oil and gas drilling
Rafineria Gda◆ska S.A.	
주소 :	ul. Elblaska 135, 80-718 Gdansk
전화 :	(48 58) 308 71 11
팩스 :	(48 58) 301 88 38
홈페이지 :	www.rg.pl
업종 :	Oil processing
Statoil Sp. z o.o.	

주소 :	ul. 29 listopada 10, 00-465 Warszawa
전화 :	(48 22) 622 20 02
팩스 :	(48 22) 622 19 31
홈페이지 :	www.statoil.pl
업종 :	Oil-derived fuels and others

BP Poland Sp. z o.o. i jawna

주소 :	ul. Jasnogorska 1, 31-358 Kraków
전화 :	(48 12) 619 12 00
팩스 :	(48 12) 619 12 05
홈페이지 :	www.bp.pl
업종 :	Gas stations, LPG installations, asphalt, lubricants, chemicals

- 전력산업

Polskie Sieci Energetyczne S.A.	
주소 :	ul. Mysia2, 00-496 Warszawa
전화 :	(48 22) 693 12 04
팩스 :	(48 22) 693 10 87
홈페이지 :	www.pse.pl
업종 :	Electricity

Elektrownia Opole S.A.

주소 :	46-045 Brzezine k/Opola
전화 :	(48 77) 423 50 50
팩스 :	(48 77)423 50 12
홈페이지 :	www.elopole.com.pl
업종 :	Electricity

Stoen S.A.

주소 :	Wybrze◆e Ko◆ciuszkowskie 41, 00-347 Warszawa
전화 :	(48 22) 31 11
팩스 :	(48 22) 821 41 05

홈페이지 :	www.stoen.pl
업종 :	Electricity

- 조선 산업

Stocznia Gdynia S.A.	
주소 :	ul. Czechoslowacka 3, 81-969 Gdynia
전화 :	(48 58) 627 15 00
팩스 :	(48 58) 621 08 79
홈페이지 :	www.stocznia.gdynia.pl
업종 :	Ship building

- 가전 부문

Philips consumer Electronics Industries Poland Sp. z o.o.	
주소 :	ul. Lotnicza 2, 82-500 Kwidzyn
전화 :	(48 55) 262 13 03
팩스 :	(48 55) 262 16 66
홈페이지 :	www.philips.com
업종 :	Consumer Electronics

- 통신 부문

Telekomunikacja Polska S.A.	
주소 :	ul. Nowy ◆wiat 6/12, 00-400 Warszawa
전화 :	(48 22) 827 43 63
팩스 :	(48 22) 826 56 53
홈페이지 :	www.tpsa.pl
업종 :	Telecommunication
Polska Telefonía Cyfrowa Sp. z o.o.	
주소 :	Al. Jerozolimskie 181, 02-222 Warszawa
전화 :	(48 22) 413 60 00
팩스 :	(48 22) 413 69 14
홈페이지 :	www.era.pl
업종 :	GSM telecommunication

Polkomtel S.A.	
주소 :	Al. Jerozolimskie 181, 02-222 Warszawa
전화 :	(48 22) 413 60 00
팩스 :	(48 22) 413 69 14
홈페이지 :	www.plus.gsm.pl
업종 :	GSM Telecommunication
Polska Telefonía Komórkowa Centertel Sp. z o.o.	
주소 :	ul. Skierniewicka 10A, 01-230 Warszawa
전화 :	(48 22) 594 78 01
팩스 :	(48 22) 594 78 02
홈페이지 :	www.idea.pl
업종 :	GSM and analog telecommunication

- 자동차/부품, 운송 부문

Fiat Auto Poland S.A.	
주소 :	ul. M. Grazynskiego 141, 43-300 Bielsko Biala
전화 :	(48 33) 813 21 00
팩스 :	(48 33) 813 20 36
홈페이지 :	www.fiat.com.pl
업종 :	Automotive
Polskie Linie Lotnicze LOT SA	
주소 :	ul. 17 Stycznia 39, 00-906 Warszawa
전화 :	(48 22) 606 65 65
팩스 :	(48 22) 846 09 09
홈페이지 :	www.lot.com
업종 :	Air transport
Volkswagen Poznan Sp. z o.o.	

주소 :	ul. Warszawska 349, 61-060 Poznan
전화 :	(48 61)876 17 29
팩스 :	(48 61) 876 14 75
홈페이지 :	www.volkswagen-poznan.pl
업종 :	Automotive

Renault Polska Sp. z o.o.

주소 :	ul. Marynarska 13, 02-674 Warszawa
전화 :	(48 22) 541 10 00
팩스 :	(48 22) 541 10 01
홈페이지 :	www.renault.com.pl
업종 :	Automotive

- 제철, 광업 부문

Weglokoks S.A.	
주소 :	ul. Mickiewicza 29, 40-085 Katowice
전화 :	(48 32) 258 24 31
팩스 :	(48 32) 251 54 53
홈페이지 :	www.weglokoks.com.pl
업종 :	Coal, coke

KGHM Polska Miedź S.A.

주소 :	ul. Skłodowskiej-Curie 48, 59-301 Lublin
전화 :	(48 76) 847 62 00
팩스 :	(48 76) 847 85 00
홈페이지 :	www.kghm.pl
업종 :	Non-ferrous ore mining, copper and noble metal production

Polskie Huty Stali S.A.

주소 :	Al. Piłsudskiego 92, 41-308 Dąbrowa Górnicza
전화 :	(48 32) 794 53 33
팩스 :	(48 32) 795 52 00
홈페이지 :	

업종 :	www.hutakatowice.com.pl Metallurgy
Katowicki Holding Weglowy S.A.	
주소 :	ul. Damrota 16-18, 40-022 Katowice
전화 :	(48 32) 757 31 05
팩스 :	(48 32) 757 31 50
홈페이지 :	www.khw.pl
업종 :	coal mining and clining
Jastrzebska Spolka Weglowa S.A.	
주소 :	ul. Armii Krajowej 56, 44-330 Jastrzebie Zdroj
전화 :	(48 32) 476 30 11
팩스 :	(48 32) 476 26 71
홈페이지 :	www.jsw.pl
업종 :	coal mining
Nadwislawski Wegiel S.A.	
주소 :	ul. Baluckiego 4, 43-100 Tychy
전화 :	(48 32) 324 55 11
팩스 :	(48 32) 324 55 03
홈페이지 :	www.nwsa.pl
업종 :	coal mining

- 식료품 부문

Jeronimo Martins Dystrybucja Sp. z o.o.	
주소 :	ul. Wolczynska 18, 60-003 Poznan
전화 :	(48 61)651 30 00
팩스 :	(48 61) 651 31 04
홈페이지 :	www.jeronimomartins.com
업종 :	Food and Industrial Products

PHZ Bartimpex S.A.	
주소 :	Mariew 149/151, 05-083 Zaborów
전화 :	(48 22) 629 34 43
팩스 :	(48 22) 621 09 43
홈페이지 :	www.bartimpex.com
업종 :	Food and Industrial Products
Milo S.A.	
주소 :	ul. Grochowska 301, 03-842 Warszawa
전화 :	(48 22) 633 97 97
팩스 :	(48 22) 669 39 84
홈페이지 :	www.milo.com.pl
업종 :	food and tobacco distribution

- 제약부문

Polska Grupa Farmaceutyczna S.A.	
주소 :	ul. Zbaszynska 3, 91-342 Lodz
전화 :	(48 42) 640 79 57
팩스 :	(48 42) 640 71 43
홈페이지 :	www.pgf.com.pl
업종 :	Pharmaceutical Products
Farmacol S.A.	
주소 :	ul. Rzepakowa 2, 40-541 Katowice
전화 :	(48 32) 208 06 00
팩스 :	(48 32) 202 27 65
홈페이지 :	www.farmacol.com.pl
업종 :	Pharmaceuticals

VII. 부록

1. 유통산업동향	64
2. 마케팅유의사항	67
3. 비즈니스 관광명소	73
4. 교역 및 경제동향	74
교역현황, 교역환경, 대한민국교역, 경제동향	
5. 폴란드 투자환경	78
6. 폴란드 진출 한국기업 및 외국기업	80
7. 폴란드 주거환경	85

1. 유통산업 동향

서유럽 대형 유통전문 업체들이 바르샤바를 비롯한 폴란드의 주요 도시에 슈퍼/하이퍼마켓/ 대형할인점 등을 속속 개점함에 따라 이들 대형 양판점을 통한 중동구 최대시장인 폴란드로의 진출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폴란드에는 1998년까지 57개에 불과하던 종합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슈퍼/하이퍼마켓/할인점이 1999년 112개, 2001년에는 140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3년 190개, 2005년까지는 220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폴란드에 대형 유통점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주요 외국 업체를 보면 Auchan, Carrefour, Geant, Tesco, Real, Makro, Eurocash 등 9개사로서 투자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벨지움, 노르웨이, 영국 등임

이와 같이 폴란드에 대형 유통점들이 속속 개점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서유럽 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시장포화, 신규 유통점 개점시의 고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2004.5.1부 폴란드의 EU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가 중동구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폴란드에 과감하게 진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유통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매출액이 전체 유통형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어 2000년에는 전체의 26%인 45억불을 기록했으며, 2003년에는 전체의 46%에 달할 전망이다.

-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폴란드의 유통시장은 서유럽에 비해 20 - 25년 정도 뒤져 있었으나, 선진 유통업체가 폴란드에 진출하면서 이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판매 상품의 품질, 유통장비, 배달체계, 판촉, 회계 등 유통관련 전분야가 빠르게 선진화되고 있다.

하이퍼마켓과 대형전문점 등 폴란드내 대형유통점은 17개점으로 이들 유통점이 운영하는 점포수는 249개점에 달하며, 점포수를 기준으로 마켓 점유율을 보면, 종합품목을 취급하는 하이퍼마켓은 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자제품 34%, 건축용품 7.6%, 사무용품 6% 등이다.

- 폴란드내 대형유통점 운영개요

구 분	품 목	유통점수	점포수	점유율(%)
하이퍼마켓	종합품목	10	121	49
전문점	전자제품	2	85	34
	스포츠용품	1	1	0.4
	사무용품	1	15	6
	건축용품	2	19	7.6
	목재제품	1	8	3
합 계		17	249	100

- 폴란드내 대형유통점 운영내역

유통점명 (설립연도)	운영업체 (투자국)	투자액 (백만불)	매장면적 (s/m)	점포수	연간 매출액 (백만불)	주요제품
Real (1997)	Metro AG (독일)	625	168,000	25	600	식품,가전제품,완구류 등 종합품목
M a k r o Cash & Carry (1994)	Metro AG (독일)	275	228,000	19	700	식품,가전제품,완구류 등 종합품목
Jumbo (1995)	Jeronimo Martins (포르투갈)	350	26,500	5	960	식품,가전제품,완구류 등 종합품목
Geant (1996)	Casino (프랑스)	850	170,000	15	650	식품,완구류,가전제품 등 종합제품
Carrefour (1997)	Carrefour (프랑스)	75	175,000	9	600	식품,가전제품,완구류 등 종합품목
HIT (1994)	HIT (독일)	68	143,000	13	450	식품,가전제품,완구류 등 종합품목

Hypernova (1995)	Ahold (네덜란드)	미공개	104,000	8	442	식품,가전제품,완구 등 종합품목
Auchan (1996)	Auchan (프랑스)	137	120,000	8	402	식품,가전제품,완구 등 종합품목
Tesco (1995)	Tesco (영국)	500	75,000	10	490	식품,가전제품, 완구 등 종합품목
E. Leclerc (1996)	E. Leclerc (프랑스)	미공개	54,000	9	370	식품,가전제품,완구 등 종합품목
Media Markt (1998)	Metro AG (독일)	미공개	45,000	15	600	가전제품
EURO RTV AGD (1998)	EURONET (폴란드)	미공개	210,000	70	미공개	가전제품
DECATHLO N (2001)	DECATHLO N (프랑스)	미공개	5,000	1	미공개	스포츠용품
Office Depot (1995)	Office Depot (미국)	미공개	60,000	15	미공개	사무용품, 사무가구
OBI (1998)	Tengleman (독일)	미공개	170,000	14	미공개	건축자재 (DIY)
Leroy Merlin (1995)	Auchan (프랑스)	미공개	35,000	5	미공개	건축자재 (DIY)
IKEA (1992)	IKEA (스웨덴)	미공개	80,000	8	미공개	목재제품
합계 17개점				249점포		

우리나라의 2002년 대 폴란드 수출은 3억4,900만불로 대형 양판점을 통한 식음료, 신발, 의류, 문구, 화장품, 타이어, 자동차 악세서리,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 등의 진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대형 양판점에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는 이들 대형 유통점에 납품하는 중소 수입상을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대형 유통점들이 채고부담 및 수입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대행업체로부터 수시로, 소량씩 공급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유통점의 구매채널, 시기, 방법, 납품소요기간, 대금결제 조건, 구매품목 등 세부적인 구매전략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출확대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마케팅 유의사항

가. 수입관행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주류 일부 및 원료, 담배, 원유, 디젤 연료 등 특수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시 운송서류 및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 / 자동차 부품 등 Homologation이 필요한 일부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 의약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수출업체가 물건을 선편으로 독일 함부르크의 보세창고에 보내면 폴란드 수입상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일에서 폴란드까지 육로로 운송 및 통관하여 인수하는 방법을 취한다. 수출업체는 물건을 독일 함부르크에 보내놓고 바이어로부터 수입잔금과 B/L을 맞바꾸면서 물건을 인도한다.

수입상품의 유통구조는 수입상->디스트리뷰터->도매상->소매상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다. Hurtownia(자체 창고를 갖고 있는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디스트리뷰션, 도매, 소매를 모두 수행한다. 또한 이들 수입상은 원부자재를 생산공장에 직접 공급한다. 또한 이들은 수입상품을 러시아 및 동구권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L/C 거래를 회피한다. 수입상의 자본력 부족, 은행의 보수적인 관행, 세금 회피 등 때문에 L/C 방식 보다는 T/T 또는 직접 방한 구매를 선호한다. 은행자금 활용이 어렵고(고율의 이자, 과다 담보 요구) 바이어의 자본력 취약으로 외상거래(D/P,D/A)를 빈번히 요청한다.

스톡구매 방식을 선호한다. 국내시장의 불안정, 장기 주문 생산에 필요한 자금력부족, 소량 다품종구매 등의 이유로 스톡 수입방식이 성행한다. 디자인, 패션 등소비 행태가 자주 바뀌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저질 스톡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산 이미지 저하, 국내 덤핑출하 상품의 대량 반입으로 인한 한국산 판매가격의 하락 등 부작용도 병행 발생하고 있다.

탈세. 절세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일부 나타난다. Under-Value Invoice 요구가 많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지 시장 마케팅 수행에 애로요인이다.

고정 바이어 확보가 어렵다. 시황에 따라 수입대상품목 변경이 빈번하고, 신규회사 설립과 폐업이 잦기 때문이다. 바이어들은 주문한 물건이 함부르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어의 경우는 선수금을 포기하게 되고, 수출업체로서는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 소비재가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시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 시황에 따른 부화뇌동식 주문이 많다. 특히 계절 품목의 경우 수요 급감시 대금 지급 거절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는 위험하다.

나. 거래시 유의사항

폴란드 시장은 서구에 비해 그렇게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다. 따라서 폴란드 기업인들과 교역을 추진할 경우 미리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정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구매자와 직접적이고도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들의 상당수는 INVOICE 가격을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UNDER VALUE를 요구하는 바이어들은 수입 후 딜러에게 제품을 넘길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변칙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면식을 쌓을 수 있는데 거래 가능성이 있는 폴란드 기업을 미리 선정,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기 2-3개월전에 연락을 취해 만날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 계획이나 전시 품목 샘플을 미리 보내는 것도 추진할 만하다. 폴란드의 서쪽 지방 도시인 포츠난을 중심으로 국제 전문 전시회 개최가 많다. 이 외에도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폴란드 기업인들은 보통 제품의 기술 및 품질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찾

은 고장이 발생하거나 다루기 어렵거나 하면 반응이 냉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 요소이다. 또한 납기일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일단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시장에 장기적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계류 등의 품목인 경우 필수적으로 A/S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제품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진출 초기단계에서는 현지실정에 밝은 에이전트의 활용이 권장되나 과거의 거래관계 없이 에이전트부터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간의 거래로 신뢰성을 쌓은 다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에이전트로 지정 받고서 수입자금 동원능력의 부족으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구조의 낙후 및 금융비용이 높아 수입상들은 대금의 일부 지급 후 상품 도착 후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관계로 거래규모가 커질 경우 에이전트 활용 또는 직접 현지법인 진출을 통한 현지시장 직접관리가 필요하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소량 다품종 주문이기 때문에 주문량이 1개 컨테이너 (20FT CONTAINER)이면 비교적 많은 수량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비즈니스 에티켓

폴란드인과 거래할 때는 이런 점에 유의하라!!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은 폴란드를 "동부유럽 국가(Eastern Europe)"로 호칭하고 있으나 폴란드 국민들은 "중부유럽 국가(Central Europe)"로 불리워지기를 선호 한다. 폴란드인의 "중부유럽"의 개념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고, "동부유럽"에 대한 개념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폴란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발트 3국, 백러시아, 우트라이나, 러시아 등 폴란드 보다 못사는 나라이다.

폴란드를 방문할 경우 3월-6월초, 9월에서 11월 사이가 적합하다. 7-8월은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 폴란드인들의 평균적인 여름 휴가 일수는 연간 30-40일로 긴 편이다.

말이나 행동에 실례를 범치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폴란드에서는 인사를 하거나 작별을 할 때 항상 악수를 나눈다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여성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도 여전히 통용된다. 명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장소에 안 나타나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시는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10-15분 정도 늦는 것은 크게 문제시 삼지 않는다. 그러나 15분 이상 지나면 기다리지 않는다.

아직도 일부의 비즈니스 맨들은 공산주의체제의 영향 및 슬라브적인 느슨한 기질의 영향으로 무책임하게 약속하고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서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폴란드인은 솔직하고 정적이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상담에 임하는 폴란드 기업인들은 영어 구사가 서투르며 오히려 러시아어,독어, 불어 등을 구사하는 이들이 많다.

폴란드어를 약간씩 구사하거나 폴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인사들에 대해 말하면 화기애애하게 상담할 수 있다. 세계적인 유명인사로는 코페르니쿠스(지동설, "지구는 돈다"), 쇼팽(피아노의 시인), 퀴리부인(노벨 물리상 수상, 노벨 화학상),Rudolf Weigel(1894년 Typhoid Vaccin 개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등을 언급하면 좋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자유노조 지도자 바웬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데 고학력층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독특한 관측용품 등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선물은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인상을 각인시켜 놓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폴란드측 상대방을 점심이나 저녁에 초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또한 유익하다 가볍게 한담을 나눌 때는 가정사를 포함, 다양한 소재가 화제로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사안은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

국영 기업이나 대규모 공장 등에서는 여전히 위계질서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들을 방문하여 상담할 때에는 정장의 복장과 예의를 갖추어 상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라. 상담시 유의사항

무역을 대행하는 무역회사 보다 제조업체를 선호하므로 제조업체인 경우 제조업체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폴란드 업체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제조업 마인드 보다는 트레이딩 마인드이다. 수입상 자신들이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의 공급업체도 단순 무역상은 기피하고, 대신 제조업체와 직거래하기를 희망한다. 동부 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대륙지도를 보면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COCOM(Coordination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Area/대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 시기에도 폴란드는 서방의 물품을 확보해 공산권에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90년 폴란드가 개방된 이후는 이와 같은 중개 또는 중계 무역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폴란드의 주요 수입상들은 수입상품을 바로 인근 동방 국가에 전매하거나 수입 원료로 폴란드에서 가공된 상품을 인근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타 유럽에 비해서도 폴란드 수입상들의 이같은 제조업체 선호는 더욱 심하다.

구체적인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불조건에 관해서 합의해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 대부분은 10-30%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는 COD 조건을 주장한다. L/C 개설만 고집하면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는 동구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간 20%대의 은행금리와 L/C 개설시 은행이 110%의 현금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항공 딜리버리인 경우 50% 선금, 50% 선적 직전 지불

정도의 조건이면 위험 부담이 없는 편이다.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나갈 때 단 한 번에 끝장내려 서두르지 말고 여러 번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폴란드측 파트너는 매우 철저히 준비해 협상에 임하는 편이다. 따라서 뛰어난 업무지식과 능숙한 상인 기질을 갖추고 있다면 호감을 사게 되며 협상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인들도 타고난 장사꾼임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예기치 않게 상대방으로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공세에도 효과적으로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또한 폴란드 시장에 여타 경쟁사 제품이 아직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미 정보를 파악해 협상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됐든 이들과는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동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편견을 갖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 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 한편 생산제휴를 제안해올 경우 외면하지 않고 지불 방식에서도 외상을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협상이 쉽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

폴란드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부를 창출해오고 있다. 이들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연한 입장을 취할 줄도 알고 또한 결단력이 강해 위험을 무릅쓴 결정도 종종 내리곤 한다. 당연히 급속히 부를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

3. 비즈니스 관광명소

스타디움 마켓 (Stadion X-Lexia)

바르샤바의 비스와강의 동부지역에 소재한 스타디움 마켓(Stadion X-Lexia)는 1989년에 기존의 야외운동장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현재 운영업체는 Damis사로 전체 면적은 32 Ha에 달하고 있으며, 5천개사가 성업 중이다. 일명 러시아 마켓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러시아 보따리상이 대거 유입되어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스타디움 마켓에서 거래되는 품목 및 비중은 의류 (70%), 신발 (14%), 화장품 (3%), 가전제품 등 기타 제품이다.

크라코프 직물회관 (Sukiennice)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00km 거리의 크라코프(Krakow) 중앙광장(Rynek Główny)에 소재한 직물회관 (Sukiennice)는 14세기에 설립되었다. 직물회관의 명칭은 설립 당시 의류, 섬유가 주로 거래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1층은 토산품 센터로 민속인형과 레이tm, 목제조각품 등의 각종 기념품 판매점이 즐비하게 있으며, 2층에는 18-19세기의 폴란드 조각과 회화 작품 등이 전시된 화랑이 다수 성업 중이다.





〈크라코프 식물회관〉

4. 교역 및 경제동향

- 교역현황

2002년도 폴란드의 교역규모는 961억불로 수출 410억불, 수입 551억불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수출은 연평균 13-15%씩 급증한 반면, 수입은 3-10% 증가에 그쳤다. 수출의 증가에 따라 무역적자도 최근 3년간 172억불에서 142억불로 감소하고 있다.

수출의 GDP 대비 점유율은 22%로 인근 체크의 55%, 헝가리의 65% 대비 낮아 수출확대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1인당 수출액은 1,060불로 인근 슬로바키아 2,300불, 헝가리 3,000불, 체크, 3,200불, 슬로베니아 4,600불 대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폴란드의 수출입 대상국은 수출의 60%, 수입의 70%를 EU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다음으로 수출의 7%는 CEFTA, 6%는 CIS 국가에 의존하며, 수입의 6.4%는 CEFTA, 9.6%는 CIS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부품, 가구, 선박, TV, 광케이블, 석탄, 철강제품, 의류, 타이어, 구리 등이며, 수입품목은 전기/전자 제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신발, 섬유류 제품 등이다.

- 교역환경

폴란드는 1989년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하는 체제전환을 시행하고, 자국의 경제발전과 대외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교역환경을 적극 개선해 왔다.

체제전환 이전에는 국영대외무역기구(FTO)를 통한 국가독점무역체제를 운영하였으나, 체제전환을 계기로 개인/민간기업에게 직접무역을 허용하였으며, 현지화의 태환화, 대외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는 장기적인 EU가입을 목표로 1992.3.1부로 EU와의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인하 등 무역/투자 장벽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대 EU 교역을 활성화하였다.

아울러 폴란드는 1993.3.1부 CEFTA 협정을 통해, 중부 유럽 4개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크)간의 교역을 활성화하였으며, 기타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통해 7개 국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파로에, 터키, 크로아티아)와의 교역환경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폴란드는 1995.6.1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함으로써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교역 환경을 적극 개선하였다. 특히, 폴란드는 1996.11.22에는 선진국경제협력기구인 OECD에 우리 나라와 함께 가입함으로써, 폴란드의 국제 사회에서 대외교역 환경 개선 수준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의 대외 교역도 급신장하여 교역규모가 1992년 273억불 (수출 139억불, 수입 134억불)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961억불 (수출 410억불, 수입 551억불)로 1992년 대비 3.5배 이상 급증하였다.

폴란드는 2004.5.1부 EU가입으로 EU 역내 교역 자유화와 함께 EU 통합관세율 채택을 통해 평균 수입관세율이 현행 9.7%에서 2.7%로 3배 이상 대폭 인하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 대 한국 교역

경제성장율 (%)	2.6	6.5	4.1	4.0	1.0	1.3	3.5	5.0%
물가상승율(%)	43.0	27.8	7.3	10.1	5.5	2.0	1.7	
실업률 (%)	13.6	14.9	13.0	15.0	17.4	17.8	18.8	

* 주 : 2003년, 2004년 전망치

폴란드 경제는 민간 부문의 주도하에 경제회복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경제회복에는 정부정책이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이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각료 경질, 예산 적자 확대, 정부-중앙은행간의 정책 충돌 등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폴란드내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대외 수출활동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폴란드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상반기 이래 성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폴란드 경제의 동인으로는 경기 침체국면 이후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경제회복 현상,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 효과, 그리고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외 수출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간 재정적자가 100억불에 달하며,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몇 년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는 2004.5.1부 EU 가입을 통해 2004-2013년간 758억 유로 상당의 EU 기금을 지원을 받게 되어, 도로 건설, 농업발전, 환경 보호 등의 대폭 적인 개선 등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폴란드에 대한 2004-2013 (10년)간 EU 지원예산은 후보국 10개국에 지원되는 총 3,405억 유로 중 30%에 상당하는 1,023억 유로 (2004-2006년 : 63억 유로, 2007-2013년 : 96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폴란드의 EU에 대한 회원 분담금이 265억 유로 (2004년-2006년 65억 유로, 2007-2013년 : 200억 유로)로 상당하므로 폴란드의 순수한 EU 지원 수혜액은 758억 유로이다.

폴란드는 동 EU 기금을 도로 건설 등 인프라구축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업 투자, 실업 해소 특별 프로젝트 투자 등과 농민 지원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NATO도 유럽 서부지역 사령부 산하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있는 반면, 2008년까지 폴란드의 군사시설에 대해 5억불 (20억 Pln) 상당을 투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폴란드의 해당 이전 대상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폴란드의 투자환경

구소연방 및 서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사적, 상업적 중심지이다. 지리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에 따라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유럽, 중동유럽 및 구소연방 국가와 역사적 긴밀성이 강하며 공동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고 중동구권 국가 중 상권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인근국으로의 시장 확대가 용이하다.

폴란드는 대EU 진출기지로서 유망시 된다. 92년 3월 이후 EU 준회원국으로서 모든 분야에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5월 EU 가입이 확정되어 있어, 폴란드를 통한 EU 진출이 유망시 된다.

폴란드는 중동구 최대의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312,683평방 Km)와 인구(38.5백만명)면에서 중동구 최대이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석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철광석, 석탄, 동, 아연, 은, 유황, 목재 등이 풍부하다.

중동구권 최초의 플러스 경제성장 및 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폴란드는 중동구권 국가중 최초로 92년도에 +2.6%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0년도에도 GDP가 4.1% 증가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1.0%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02년에는 1.3%로 회복하였으며, 2003년에는 3.5%로 급속히 회복 중이다.

비교적 저렴한 숙련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학 석사과정까지 교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고급인력도 많다.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숙련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다. 노동생산성도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3년 전에는 저렴한 노임이 가장 중요한 투자 요인이었으나, 현재에는

2004년 EU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성장잠재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투자 유치 방안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이다. 투자유치와 국영기업의 경쟁력 회복 등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국영통신회사(TPSA)의 지분매각 40억불을 포함 총 46억불의 민영화 수입을 올렸으며, 2001년도에도 발전소 등 전력분야, 국영항공사인 LOT, 비료, 화학공장, 설탕공장, 광산, 제철소 등 대규모 기업 뿐만 아니라 국영 중소기업 200개의 민영화 등을 포함해 약 41억불의 수입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과 관련 정부(국고부)가 EU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매물로 513개사가 등록을 통해, 2002년에는 약 1,000개사를 매각하였다.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EBRD 등을 통한 서방의 대폴란드 지원강화에 힘입어 91년도에 0.23백만불에 불과했던 FDI가 95년 25억불, 97년 66억불, 98년 101억불, 99년 82억불, 2000년 106억불, 2001년도 71억불, 2002년 61억불로 2002년 말까지 총 누계액은 651억불로 집계되었다.

폴란드화(주오티화)의 태환성이 확보되어 있다. 폴란드화는 개방 초기 내적 태환성(폴란드내 시중 환전소에서 경화화 교환)이 부여되었으며 95년 1월 개정 외환관리법 시행 결과, IMF로부터 95년 5월 말 주오티화의 폴란드내에서의 경상계정거래에 대한 태환성을 승인한 바 있다. 아울러 2000.4월 부터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외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폴란드 진출 한국기업 및 주요 외국기업

가. 전자부문

분야	회사명	투자국가	투자개시 연도	투자금액 (백만불)	비 고
전자	Philips	네덜란드	1991	363.8	전자부품 생산
전자	General Electric Corporation (GE)	미 국	1995	335.2	전기/전자제품 생산
전자	Thomson	프랑스	1995	301.2	TV생산
전자	Alcatel	프랑스	1996	150.0	전자제품/부품 생산
전자	Lucent Technologies Network Systems Netherlands BV	네덜란드	1995	139.0	전자제품/부품 생산
전자	Siemens	독 일	1918	98.5	전자제품/부품 생산
전자	United Technologies Holding B.V.	미 국	1995	70.0	전자제품/부품 생산
전자	Flextronics International	독 일	1995	65.0	전자제품/부품 생산
전자	Daewoo Electronics Poland	한 국	1993	47.0	TV 생산
전자	LG Electronics Poland	한 국	1999	11.0	TV 생산
전자	Tohoku Pioneer Electronic Corporation	일 본	1995	3.9	전자제품/부품 생산
전자	Sylea Italia Srl	이태리	1995	2.8	전자제품/부품 생산
전자	Ericsson	스웨덴	1992	2.0	전자제품/부품 생산

전자	Motorola Inc.	미 국	1992	2.0	전자제품/부품 생산
----	---------------	-----	------	-----	------------

* 정보원 : 폴란드 투자청 (PAIZ : Polish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나. 자동차/ (부품) 부문

분야	회사명	투자국가	투자개시 연도	투자금액 (백만불)	비 고
자동차/부품	Daewoo-FSO	한 국	1995	1552.3	자동차 생산
자동차/부품	Fiat	이태리	1992	1545.9	자동차 생산
자동차/부품	Adam Opel AG	독 일	1991	560.0	자동차 생산
자동차/부품	Isuzu Motors Limited	일 본	1992	192.7	자동차 판매/부품생산
자동차/부품	Volkswagen AG	독 일	1993	186.0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Delphi Automotive Systems	미 국	1995	184.0	자동차 부품판매
자동차/부품	Ford	미 국	1993	60.3	자동차/ 부품판매
자동차/부품	Visteon Automotive Systems	미 국	1995	43.0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Metallurgica Assemblaggi Carpentiere (MAC) SpA	이태리	1995	28.0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Volvo Bus Corporation	스웨덴	1991	50.0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Manuli Rubber Industries	이태리	1995	16.4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Exide	미 국		14.5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DaimlerChrysler AG	다국적	1996	12.0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Stahlschmidt & Mainworm	독 일	1995	11.0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Lear Corporation	미 국	1995	8.0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Same Deutz Fahre	이태리	1995	8.0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Dana Corporation	미 국	1995	7.5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Krzysztof Olszewski	독 일	1995	7.2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Petri AG	독 일	1995	5.8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Karosseriewerke Dresden Gmbh	독 일	1995	3.8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Bernard Moteurs	프랑스	1995	3.2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Grossman Gmbh	독 일	1995	1.7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자동차/부품	Kaz Jackow, Włodzimierz Łukowski	미 국	1995	1.1	자동차 부품생산판매

* 정보원 : 폴란드 투자청 (PAIZ : Polish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다. 섬유 및 의류 부문

분야	회사명	투자국가	투자개시	투자금액	비 고
----	-----	------	------	------	-----

			연도	(백만불)	
섬유/의류	Sud Woll AG	독 일	1995	60.0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Lee Bell Inc.	미 국	1995	29.4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Adolf Ahlers AG	독 일	1995	22.0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Levi Strauss	독 일	1995	20.0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Tessitura Bresciana	이태리	1995	16.0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Coast Viyella Plc	영 국	1995	15.0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Teresio Guazzone Group	이태리	1995	12.3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Legler	이태리	1995	12.0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Pagh Morups Bornekonifektion APS	덴마크	1995	8.3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Orsa Srl	이태리	1995	6.0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Filatura e Tessitura di Tollegno SpA	이태리	1995	5.0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Ahlers Goldress	독 일	1995	3.6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Budzinsky +Hor GmbH + Co	독 일	1995	3.5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Deni Cler	미 국	1995	3.4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Karma Bella	네덜란드	1995	3.1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섬유/의류	Finanziaria Mobiliare Immobiliare di Pollone	이태리	1995	2.5	직물/섬유/의류생산/판매

* 정보원 : 폴란드 투자청 (PAIZ : Polish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라. 석유화학 부문

분야	회사명	투자국가	투자개시 연도	투자금액 (백만불)	비 고
석유화학	Aral	독 일	1995	250.0	석유제품유통
석유화학	Preem Petroleum AB	스웨덴	1995	48.0	석유제품유통
석유화학	Neste Oil	핀란드	1995	20.0	석유제품유통
석유화학	Exxon Corporation	미 국	1995	18.0	석유제품유통
석유화학	Conoco Central Europe Inc	미 국	1995	10.0	석유제품유통
석유화학	AGIP Petroli SpA	이태리	1995	4.2	석유제품유통
석유화학	DEA Mineraloel	독 일	1995	2.5	석유제품유통
석유화학	Glaxo Wellcome	영 국	1995	230.4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Pliva d.d.	영 국	1995	154.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Unilever NV	다국적	1995	140.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British Oxygen Corporation (BOC)	영 국	1995	130.0	화학제품 생산/유통

	Group)				
석유화학	Air Liquide	프랑스	1995	55.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ICN Pharmaceuticals Inc.	미 국	1995	51.1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Praxair Inc.	USA	1995	50.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Cussons Group Ltd.	영 국	1995	46.8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Beiersdorf	독 일	1995	40.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Bayer AG	독 일	1995	31.3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Oriflame	스웨덴	1995	35.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Alcro - Beckers AB	스웨덴	1995	33.2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Kalon Group BV	영 국	1995	27.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KRKA	슬로바니아	1995	25.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Byk Gulden	독 일	1995	22.7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AGA AB	스웨덴	1995	22.4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L'Oreal SA	프랑스	1995	21.1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Uponor Group	핀란드	1995	20.9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Novartis	스위스	1995	18.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Chemitex Trading Ltd.	영 국	1995	15.4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Sanofi-Synthelabo S.A.	프랑스	1995	15.3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Mc Bride	영 국	1995	15.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Messer Griesheim	독 일	1995	14.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ICI Omicron BV	네덜란드	1995	13.1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Benckiser	독 일	1995	13.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Lek d.d. Ljubljana	슬로바니아	1995	10.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BASF AG	독 일	1995	10.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Novo Nordisk A/S	덴마크	1995	9.6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Solco Basel	스위스	1995	9.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Petrofer Oil and Chemicals	독 일	1995	8.8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Atofina S.A.	프랑스	1995	8.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Gerresheimer	독 일	1995	8.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Vetequinol	프랑스	1995	7.3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Colgate-Palmolive	미 국	1995	6.2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Talego Holdings	네덜란드	1995	5.8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Acelon Chemicals and Fiber Corporation	대 만	1995	5.7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US Pharmacia	미 국	1995	5.5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Infispol B.V.	네덜란드	1995	4.7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Eurofoam BV	네덜란드	1995	4.5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Prodair Corporation	미 국	1995	4.5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L. Molteni & C.dei	이태리		4.2	화학제품 생산/유통

	F.lli Alitti SpA		1995		
석유화학	Martin Bauer GmbH	독 일	1995	4.0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Catzy	스웨덴	1995	3.1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Adrenatio	독 일	1995	2.7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David Minot	미 국	1995	2.1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Robert Lewis	미 국	1995	2.1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Diversey Lever Holdings B.V.	네덜란드	1995	1.7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MC ZUG Switzerland	스위스	1995	1.5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Apotex Holdings	캐나다	1995	1.4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Maria Prior - Nowak	독 일	1995	1.3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Kemira Kemi AB	스웨덴	1995	1.2	화학제품 생산/유통
석유화학	Berthold Sichert GmbH, Adolf Otto GmbH	독 일	1995	1.0	화학제품 생산/유통

* 정보원 : 폴란드 투자청 (PAIZ : Polish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마. 통신 부문

분야	회사명	투자국가	투자개시 연도	투자금액 (백만불)	비 고
통신	France Telecom	프랑스	2000	3199.4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Vivendi	프랑스	1999	1204.2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Telia AB	스웨덴	1995	340.0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Tele Danmark Internationale AS	덴마크	1995	75.2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Air Touch International	미 국	1995	66.4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DeTeMobil	독 일	1995	49.7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Media One	네덜란드	1995	49.7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Poland Telecom Operators N.V.	네덜란드	1995	30.6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PENNECOM	네덜란드	1995	28.0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GN Great Nordic	덴마크	1995	26.3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Telediffusion de France (TDF)	프랑스	1995	4.1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Twentshe Kabel Holding	네덜란드	1995	2.8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통신	C&C Partners Communications BV	네덜란드	1995	1.5	통신서비스/ 기기 유통

* 정보원 : 폴란드 투자청 (PAIZ : Polish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바. 유통산업 부문

분야	회사명	투자국가	투자개시	투자금액
----	-----	------	------	------

			연도	(백만불)
유통산업	Real	독 일	1997	625.0
유통산업	Makro Cash & Carry	독 일	1994	275.0
유통산업	Jumbo	포르투갈	1995	350.0
유통산업	Geant	프랑스	1996	850.0
유통산업	Carrefour	프랑스	1997	75.0
유통산업	HIT	독 일	1994	68.0
유통산업	Hypernova	네덜란드	1995	
유통산업	Auchan	프랑스	1996	137.0
유통산업	Tesco	영 국	1995	500.0
유통산업	E. Leclerc	프랑스	1996	
유통산업	Media Markt	독 일	1998	625.0
유통산업	Decathlon	프랑스	2001	
유통산업	Office Depot	미 국	1995	
유통산업	OBI	독 일	1995	
유통산업	Leroy Merlin	프랑스	1995	
유통산업	IKEA	스웨덴	1992	

* 정보원 : 폴란드 투자청 (PAIZ : Polish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7. 폴란드 주거환경

- 생필품 조달

90년 전면 대외무역자유화 이후 생필품은 풍부히 공급되고 있다. 특히 7년 전부터 외국자본의 HIT, TESCO, Geant, Auchun 등 대형슈퍼마켓만도 250개점이 운영됨으로 저렴한 생필품의 공급이 원활하다.

한국식품점(전화 22 642 9303)이 한 곳 있어 기초식품류 등의 구입이 가능하다. 현지 시장에서 배추, 두부 등도 조달이 가능하다.

- 레저여건

광활한 평지의 연속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바르샤바 인근에 Powsin 등 산보에 적당한 울창한 숲이 산재해 있다. 92년 8월 개장된 골프장이 한 곳 있으며, 테니스, 수영 등의 시설도 다수 있다.

스키장은 수도에서 400-450Km 거리의 Zakopane, Wisla, Szczerik 지역에 있다. 시내에는 박물관이 종류별로 있으며, 연중 프로그램에 따라 음악회, 미술전시회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시내의 공원으로는 가장 오래된 와지엔키 공원은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 공원들이 산재해 있어 여름에는 도시 전체가 녹색의 숲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골프장은 바르샤바, 그단스크, 울스친, 우즈에 각각 1개소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현지인들의 한국인 인식

사회주의 시절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88 올림픽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고,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은 국산 전자제품이 현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부의 고급관리들도 한국의 개발성장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한다.